



# Contents

2021 January  
Vol.536

## 시선이 닿다

## 일상을 펼치다

## 세상을 품다

## 소식이 오다



### COVER STORY

새로운 꿈과 희망이 피어나는 1월은 설렘으로 온통 마음이 붉게 물듭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1월,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삶에 작은 꽃잎 같은 행복이 피어났으면 합니다.



위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독자 의견 송부와 참여 코너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b>신년사</b> 이영희 교정본부장 신년사	<b>04</b>
<b>교정 ZOOM IN</b>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06</b>
<b>생각의 방향</b> 한 번의 열은 미소, 그렇게 닫힌 마음을 열게 된다	<b>12</b>
<b>지금, 이 사람</b> 로봇에 심어 둔 상상으로 미래의 봉오리를 터트리다	<b>14</b>
<b>별별 알고리즘</b> 눈에 띄지 않을 뿐 시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b>18</b>



<b>부캐를 부탁해</b> 반짝이는 꿈을 청이끼로 빛은 리틀 원예사의 테라리움	<b>20</b>
<b>선배에게 듣다</b> “이야기하고 운동하고 기록하십시오”	<b>24</b>
<b>교정인 원픽</b> 의욕 충만한 일터를 가꾸는 특급 비결	<b>28</b>
<b>힐링 메신저</b> 노을 빛어내는, 포구와 갯벌 화성&안산	<b>32</b>
<b>지구 초대석</b> 작은 수고로 재활용하는 플라스틱 배달 용기	<b>36</b>
<b>물음의 소통</b> 다시 채우기 위해 덜어 내는 '인맥 다이어트'	<b>38</b>



<b>관계 반창고</b> 끊긴 인연을 이어 주는 말하기 방법	<b>40</b>
<b>알쓸꿀잡</b>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꿀팁 잡학 사전 : 등산 편	<b>42</b>
<b>머니 레시피</b> 재테크 어렵다고? 첫 시작은 통장 쪼개기	<b>44</b>
<b>인문학 살롱</b> 그렇게 <싱어게인>은 마음을 사로잡았다	<b>46</b>
<b>오늘의 건강</b> 바로 서는 힘, 당신의 '발'은 건강한가요?	<b>48</b>



<b>대나무숲 일기 1</b> 코끝에 겨울이 스친다	<b>50</b>
<b>대나무숲 일기 2</b> 용서를 비는 참회의 글	<b>52</b>
<b>교정 리포트</b> 판결문을 통해 본 수용자 학습권 분석 ①	<b>54</b>
<b>교정 News</b>	<b>58</b>
<b>2020년도 최우수 공무원</b>	<b>65</b>
<b>독자 퀴즈 및 이벤트</b>	<b>66</b>



월간 <교정> 웹진  
<http://cowebzine.com>

발행인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1년 01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월간 교정 2021년 1월호 Vol.536  
[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

Facebook: [www.facebook.com/mojcor](http://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http://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http://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톡: [story.kakao.com/ch/mojcor](http://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영희 교정본부장 신년사



사랑하는 교정 가족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교정 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익숙한 일상의 자유를 잠시 내려놓고 자신과 주위의 소중한 분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며 절제와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욱이 다중이 생활하는 교정시설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보낸 한 해였고 현재도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정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덕분에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왔습니다만, 한 기관에서 수백 명이 넘는 수용자와 상당수의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 조직의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조직의 진정한 역량은 위기 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위기(危機)'라는 단어에는 '위험'과 '기회'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맞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교정본부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본립도생(本立道生 :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과 교정 조직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기본과 원칙이 시작이자 끝」임을 명심하시고 행동으로 옮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도관으로서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때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전국의 교정공무원 한 분 한 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 직원들과 확진자를 분산 수용한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각별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특별히 노고가 많았던 기관과 직원 여러분들께는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정 가족 여러분!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새해지만 예년과 달리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서로에 대한 비난과 질책보다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비난과 질책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이 하나가 되어 전진할 수 있도록 잠시만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정 조직은 위기 때마다 전 직원이 하나로 뭉쳐 지혜롭게 잘 극복해 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교정 조직의 위상과 가치를 위해 한 발씩 나아갈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 모두 힘차게 시작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일  
교정본부장 이영희

## 수용자의 미래를 밝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힘찬 하루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를 교정교화해 사회로의 복귀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훈련교도소로, 직업훈련을 통해 수용자를 재사회화합니다. 오래도록 사회와 단절된 수용자들이 출소 후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빵, 기계 정비, 용접, 목공 등 다양한 직업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지요.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 의지를 드러내는 교정작품을 입구에 배치해 국민들에게 변화를 향한 믿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선진 교정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 안전



새 삶을 열어 변화를 시작하는 교정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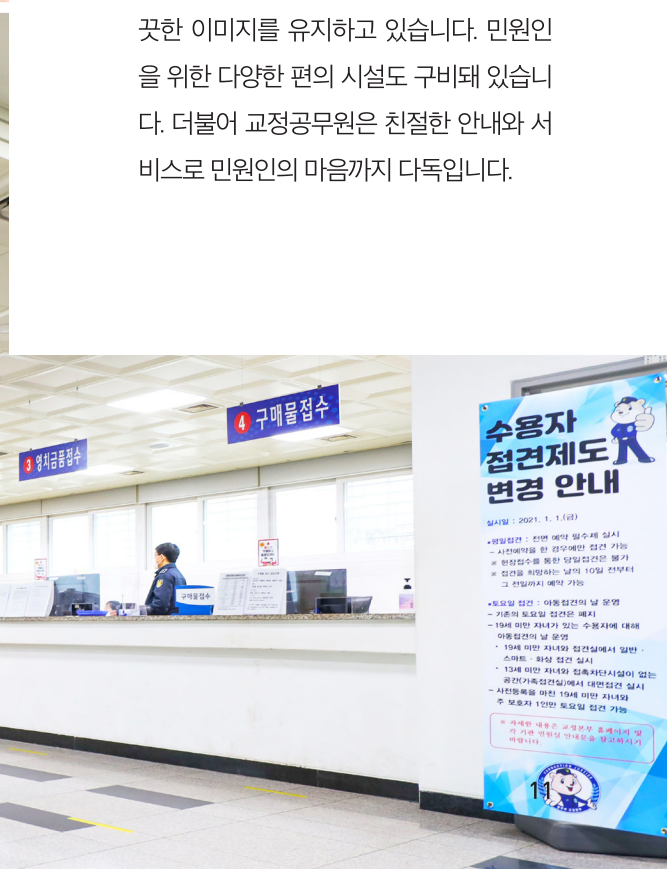
선진 교정은 엄중한 질서유지와 재범 방지를 통해 실현됩니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에게 새 삶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에게 이전과 다른 삶을 제시하고, 국민이 안심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민원인의 마음을 다독이는 친절한 교정행정 서비스



교정시설이 기피·혐오 대상이라는 국민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교정행정은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도 구비돼 있습니다. 더불어 교정공무원은 친절한 안내와 서비스로 민원인의 마음까지 다독입니다.



밝고 깨끗한 이미지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교정

## 한 번의 옅은 미소, 그렇게 닫힌 마음을 열게 된다



- 묵직한 철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나옵니다. 여자의 이름은 애나. 남편을 죽인 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죠. 모범수로 착실하게 생활해 온 애나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잠깐의 여행을 허락받았습니다. 7년 만의 외출 그리고 사흘간의 자유. 하지만 사랑하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애나에게 바깥세상은 별 관심도 흥미도 없는 곳입니다. 그저 그녀가 있던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 훈. 오늘날 사는 것처럼 보이는 훈과의 만남은 애나를 조금씩 달라지게 합니다. 훈에게는 애나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 이 순간의 그녀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가을 소풍처럼 짧았던 만남이 끝나고 헤어지던 날 훈은 말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다시 만날까요? 당신이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여기서 만나요.”
- 시간이 흐르고 2년 뒤, 이제 막 교도소에서 출소한 애나는 약속했던 그 카페에서 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긴장해서 고개를 돌려 보지만 훈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를 기다리며 애나는 가만히 표정을 가다듬고 인사말을 중얼거리려 봅니다. “안녕? 오랜만이에요.” 카페에 조용히 울려 퍼지는 애나의 독백. 그녀의 혼잣말 위로 영화 <만추>의 엔딩 스크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 애나는 그 뒤로 얼마나 더 훈을 기다렸을까요? 아마 꽤 오랜 시간 혼자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길게 내밀고 몇 번이나 인사말을 연습하면서 말이죠. 관객이 모두 영화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불 꺼진 깜깜한 스크린 너머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설렘은 걱정이 되고, 걱정은 실망이 되고, 실망은 상처가 되죠. 오래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 기다림 동안 상대방을 향해 환하게 열렸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다시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 할 수만 있다면 애나에게 가서 말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마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오지 못하는 거라고. 꼭 오고 싶었지만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상처 많은 그녀가 더 크게 상처받을까 봐, 이제 겨우 열게 된 마음의 문을 영영 닫아버릴까 봐 그 말을 꼭 해 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열어 놓고 혼자 가는가”라고 노래한 김혜순 시인의 <열쇠> 속 시구처럼 혼자 남은 그녀를 보면서 차라리 짧은 만남 같은 건 없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지 않았다면 이별도 없을 텐데.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상처도 없을 텐데.

● 그러나 애나가 받을 상처만 생각하다가 놓친 게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내내 무표정하던 그녀의 얼굴이 훈을 기다리면서 설레어 했다는 걸. “오랜만이에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잔잔한 봄 햇살 같은 미소를 지었다는 걸.

● 그 미소는 애나에게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건 꼭 닫혀 있던 마음을 누군가에게 열었다는 것이고 벽을 쌓고 살던 마음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살짝 자리를 내어 주었다는 것이니까요. 우선은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끝내 훈이 나타나지 않아도 애나는 혼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 세상 속으로 한 걸음씩, 조금씩.

●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겠다고,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만나지 않겠다고, 실패할까 봐 겁이 나서 시작하지 않겠다고 닫아 버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별과 상처와 실패는 자꾸 마음에 선을 긋게 만듭니다. 한 발 물러서게 만듭니다. 시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정말 그것으로 충분한 걸까요?

● 베트남의 수행자 틱낫한 스님은 말합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한 그루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 있고 한 마리 새가 봄을 알릴 수 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 보낼 수 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고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한 개의 별, 한 줄기의 햇살, 한 번의 웃음, 하나의 걸음. 세상 모든 것은 아주 작은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그 작은 하나가 시작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 로봇에 심어 둔 상상으로

## 미래의 봉오리를 터트리다

박재홍 로봇공학자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방역 체계가 한계에 다다른 지금, 사회 곳곳에서 부족한 의료 인력을 메우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는 로봇이 감염 취약자를 돌보고, 확진자를 보다 빠르게 선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상상으로 로봇공학자인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박재홍 교수를 만났다.



# PARK JAE HEUNG

- 호기심과 상상력을 발전시켜
- ‘휴머노이드’를 연구하는 로봇공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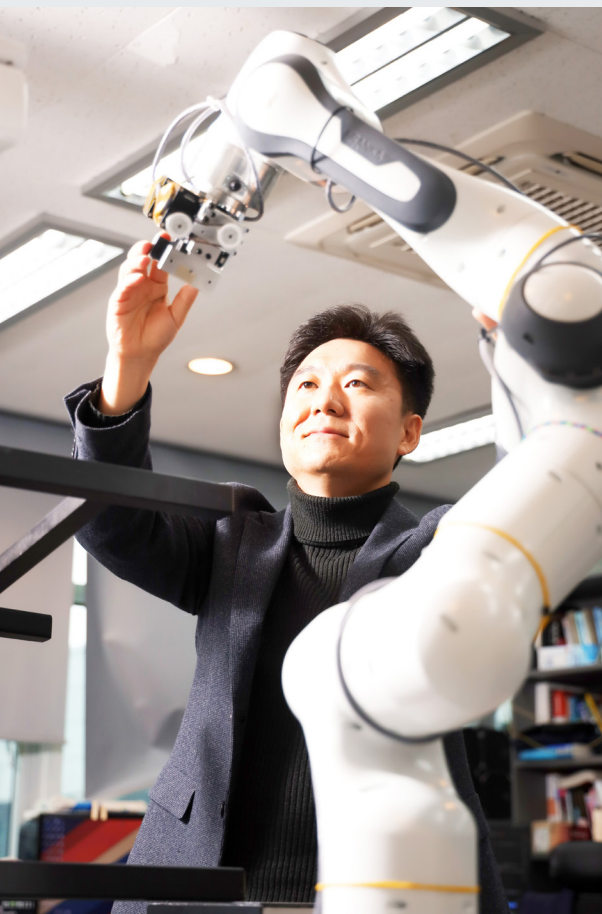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1년여를 지나온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며 생활했던 과거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자 가까운 미래 세상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변화이다.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는 너무나 그리운 시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세상의 시간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흘러가므로, 과거 속에 머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박재홍 교수는 일상에서 피어난 작은 궁금증과 상상을 흘려보내지 않고 깊이 사고하며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의 원래 전공은 항공우주공학인데, 박사과정을 밟던 중에 느꼈던 호기심을 발전시키며 로봇 분야로 전향했다.

“어느 순간 움직임을 담당하는 제어 부분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로봇공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을 만났고, 로봇이라면 제어 기술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 항공 대신 로봇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 로봇 기술의 집합체라 불리는 ‘휴머노이드’를 연구하는 박재홍 교수도 처음에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했다.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봇 팔 연구가 시작점이었다. 그는 로봇 팔의 제어를 연구하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관절 수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움직임을 제어해야 할까?’ 박재홍 교수는 이 궁금증을 풀어 보기로 했다. 관절이 늘어나는 만큼 움직임의 범위가 확대되니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제어 기술이 필요했다. 그렇게 하나둘 관절을 추가하고 다양한 제어 기술을 적용하다 보니 사람의 구조를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까지 이르게 됐다.





- **실생활과 가까운 로봇 기술 연구.**
- **사람과 로봇의 공존 방향**

휴머노이드 연구 개발은 로봇에 대한 박재홍 교수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기폭제가 됐다. 휴머노이드에서 파생된 기술을 다양한 로봇에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는 원격 조정 기술을 활용한 가구 조립 로봇과 재난 현장 투입 로봇, 무인 자동차 그리고 의료 분야의 근력 보조 로봇과 CPR(심폐소생술) 로봇 등이다. 가구 조립 로봇은 매뉴얼에 따라 가구 DIY 제품을 완성한다. CPR 로봇은 현재 상용화를 목표로 의과대학 교수진과 함께 동물실험을 진행 중이다.

“CPR 로봇 실험을 했을 때 동물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단순한 역할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로봇의 가능성을 발견했죠.”

CPR 로봇은 사람과 달리 지치지 않으며 균일한 힘과 동작으로 정확한 신체 부위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진은 로봇에 제어값을 입력하고 원격으로 조정하며 모니터링하면 된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이때, CPR 로봇은 병원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도 필요하다는 게 박재홍 교수의 생각이다. 특히 교도소, 구치소 같은 밀집 시설에 CPR 로봇 몇 대가 구비된다면 다수의 사람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로봇 연구를 한 지 어느덧 20년 차가 된 박재홍 교수는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며 활력소를 얻었다. 대학원은 논문 작성과 연구가 주를 이루기에 단조로운 생활이 반복되는데, '서울대학교 DYROS(다이로스) 연구실'을 이끌면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2013년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에서 이름을 알린 것과 2015년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재난구조로봇경진대회(DRC Finals 2015)'에 한국 대표 팀으로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자랑할 만하다.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에 앞서 당시 신도시를 개발 중이던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트랙 연습과 실험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도 없는 아스팔트 위를 달리면서 안전성도 검증하고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죠.”



**DYROS**



-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 **로봇의 시작을 꿈꾸다**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세상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로봇이 발전하면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내비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박재홍 교수는 로봇은 우리네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PR 로봇이나 재난 현장 투입 로봇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설계된 명령을 수행할 뿐, 중요한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해 준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지녔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용자와의 대면 상담이 어려울 때 교정공무원 대신 로봇이 수용자를 만날 수 있다. 이때 교정공무원은 로봇이 보여 주는 화면으로 수용자와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은 보다 안전하게 상담할 수 있으며,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이다. 또 교정공무원이 야간 근무를 할 때 구역을 나눠 로봇이 함께 순찰하면 사고 방지와 초동 대처에도 효과적이다.

로봇과 함께하는 교정공무원의 일상을 상상해 본 박재홍 교수는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 고유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대표적인 것은 교정공무원의 주요 업무인 '상담'이다. 수용자와 상담을 통해 '라포'를 형성하는 것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사이의 스킨십과 끈끈한 신뢰, 믿음은 로봇이 아닌 교정공무원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박재홍 교수는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면 상담할 수 없을 때 로봇이 대신 상담할 수 있나요?”라는 물음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번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박재홍 교수는 교정행정과 교정공무원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로봇공학자로서 교정행정에 일어날 미래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해 기분 좋은 상상을 한다.

“로봇 기술자들이 교정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이 알려져 기술 개발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교정공무원 여러분에게 로봇과 함께하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로봇공학자로서 교정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눈에 띄지 않을 뿐 시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1월 1일

시작

변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1월 1일의 이른 새벽, 사람들은 동이 트기를 기다리며 간절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는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1월의 아침 풍경은 사람들의 빛나는 눈빛 때문에 평소보다 더 밝은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시작점은 1월 1일에만 놓인 것은 아니다. 특별한 계기로 평소와 다른 포부와 의지를 품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롭게 시작할 타이밍이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인 시점,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을 한 그때,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은 지금이 모두 출발선이자 시작점인 것이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큰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1월 1일에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네 삶에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새해가 담고 있는 시작이라는 의미는 내일 또는 한 달 뒤의 어느 시점에,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작을 잘 맞이하게 될 것이다.



## 반짝이는 꿈을 청이끼로 빛은

## 리틀 원예사의 테라리엄

청주여자교도소  
교사 이혜빈

2021년 월간 <교정>의 '부캐를 부탁해' 코너는 교정공무원이 새로운 일상을 통해 또 다른 삶을 경험하는 기회이다. 시작과 끝이 맞물리는 연말과 연초, 청주여자교도소 이혜빈 교사는 청이끼를 가꾸는 정원사이자 테라리엄 전문가라는 부캐릭터, 일명 '부캐'를 만들어 지난해의 아쉬움을 날려 버리고자 했다. 부캐로 새로운 일상을 체험한 이혜빈 교사는 '반짝이는 눈빛'을 마음에 새긴다.

# Clean Air Terrarium



※ 1월호 '부캐를 부탁해' 코너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66

이전에 알던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로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다니...  
아들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99

### 연말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해를 맞이하는 '부캐를 부탁해'

처음 교정공무원으로 발령된 이후 10년, 줄곧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근무한 이혜빈 교사에게 새로운 도전과 변화는 마치 모험과도 같으리라. 익숙한 시설에서 믿음직스러운 동료들과 함께하기에 부족함 없는 직장 생활을 보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경험이나 모험이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혜빈 교사는 착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해내는 직장인,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엄마이자 아내로 살아온 지난날을 회상해 봤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서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니 아들은 혼자 학교 갈 준비를 하죠. 그것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들과 많은 것을 함께하려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체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하지만 '지난날'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후회를 남기는 법이다. 이혜빈 교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아들에게 좋은 추억을 심어 주지 못했다는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다.

“집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던 중 월간 <교정>의 '부캐를 부탁해' 코너에 신청하게 됐어요. 이전에 알던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로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다니... 아들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 청이끼 테라리엄으로 얻은 부캐 '블루빈스'

국민 MC 유재석이 '유산술', 가수 이효리가 '된다G'라는 부캐로 방송가를 장악했다면, 이혜빈 교사는 '블루빈스'라는 이름으로 테라리엄에 도전했다. 아들과 함께 청이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블루빈스는 어느 다육 식물의 이름이지만, 이번만큼은 이혜빈 교사의 부캐 이름이다. 청이끼의 푸른색과 이혜빈 교사의 이름 끝 글자를 따서 지었다.



“활짝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부캐를 부탁해’에  
신청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뿌듯해졌어요.”

“남편이 직업군인이라 크리스마스나 연말이 되더라도 훈련 때문에 집에 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들의 표정이 시무룩해져요. 분위기를 전환하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려고 해도 너무 번거로웠어요. 그런데 청이끼로 미니 트리를 만들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이혜빈 교사는 ‘블루빈스’로 아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리틀 원예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말이다. 이 마음은 아들 도운 군도 다르지 않았다. 도운이는 청이끼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세트가 도착하자마자 택배 상자를 풀고 세팅까지 척척 알아서 했다. 내심 품고 있던 기대가 택배 도착과 함께 증폭된 듯했다.  
“그동안 아들에게 잠깐 어디로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해도 괜찮다고만 말해서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활짝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부캐를 부탁해’에 신청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뿌듯해졌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주재료가 청이끼라는 점도 이혜빈 교사와 아들 도운이에게 좋은 점으로 다가왔다. 청이끼는 공기 청정에도 탁월해 창문을 퐁퐁 닫고 사는 겨울철, 집 안 공기를 조금 이나마 깨끗하게 해 준다. 이번에 만든 청이끼 트리는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에도 집이 아니라 거실 인테리어가 될 것이다.

### 미뤄 온 일을 해결해 준 만들기 키트

이혜빈 교사는 ‘부캐를 부탁해’가 너무나 특별하다고 말한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준 것은 물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에서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에는 한계가 있고 독특한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데 만들기 재료가 한 데 모인 키트 덕분에 집에서든 만들기 활동이 가능했다. 약 30분의 시간이었지만 이혜빈 교사는 아들 도운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 더욱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괴곤하다거나 혹은 이제 아들이 혼자 잘한다는 핑계로 어찌면 미뤄왔던 일일지도 몰라요. 한번 미루면 한없이 미뤄지잖아요. 그런 제 마음을 두드리듯 ‘블루빈스’라는 부캐가 찾아온 것 같아요.”  
이혜빈 교사는 ‘부캐를 부탁해’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 확신한다. 지나온 2020년을 떠나보내고 새로 맞이한 2021년, 이혜빈 교사는 거실에 놓인 청이끼 트리를 보며 아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아로새기고 더 많은 모험을 할 예정이다.

‘부캐를 부탁해’는 또 다른 삶인 부캐릭터, 일명 ‘부캐’ 트렌드에 발맞춰 살면서 한 번쯤 꿈꿔 온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코너입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보며 지친 일상에 활기를 찾아보세요. ‘부캐를 부탁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참여 신청 방법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또는 우측 QR코드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우리 아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이었네요!”



## 청이끼 트리, 어떻게 만들까?

### 재료

청이끼, 나무 모형, 화분, 베리 열매, 천일홍, 솔방울, 마 끈,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 목공풀 등

- 1 나무 모형을 화분에 꽂아 고정시킨다.
- 2 청이끼를 가위로 다듬은 후 나무 모형에 꼼꼼히 붙인다.
- 3 청이끼가 고정되도록 마 끈을 청이끼 나무에 둘둘 두른다.
- 4 청이끼 나무에 목공풀로 베리 열매, 천일홍, 솔방울 등의 장식을 달아 준다.
- 5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고정시킨다.

“학원에서 발표 수업을  
할 때 오늘 만든  
청이끼 트리를 주제로  
삼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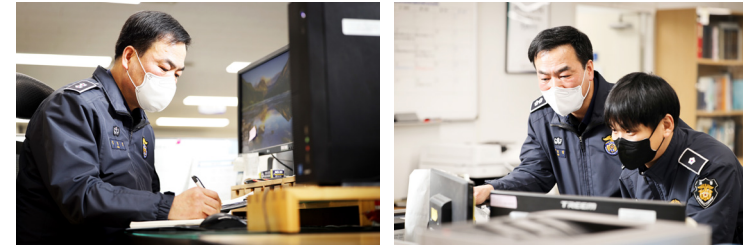


“ 이야기하고  
 운동하고  
 기록하십시오 ”



김경섭(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보안과 보안3부 교감)

사회에서 만난 좋은 선배는 때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중요한 키가 돼 준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김경섭 교감 역시 31년간의 교도관 생활 속에서 만난  
 선배들의 조언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이제, 김경섭 교감은 그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돌려주려고 한다.



“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와 말투는  
 우리같이 큰 조직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보안과 보안3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섭 교감입니다. 1989년에 입사했고 청송교도소(현 경북북부교도소), 서울구치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를 거쳐 2019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교정직을 제 천직으로 여기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Q. 담당 업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보안3부에서는 총괄팀장, 당직 교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도관이 그렇듯 기본적으로 도주, 자살, 화재 방지가 가장 큰 업무이고, 야간 근무자로서 수형자 간의 싸움이나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요.

Q. 31년간의 교정 생활에서 스스로 지키고 있는 원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교정 생활을 시작했을 때 몇몇 선배님들이 만나자마자 ‘야, 너’라고 부르면서 반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선배가 되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와 말투는 우리같이 큰 조직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로 이루어지는 업무 지시도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걸 상쇄하는 게 말하는 습관이거든요. 또 후배들에게 업무 교육을 할 때도 일방적인 하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어요. 야간에 사동을 들어갈 때는 세면실 등을 꼭 잠가야 하는데 ‘야! 잠가’라고 하면 반말심만 생깁니다. 요즘 세대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스스로 납득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끈대나 ‘라떼’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나이와 직급을 떠나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6

채증, 기록, 보호장비 착용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세세하게 남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Q.** 업무를 하면서 선배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요?

‘적자생존’입니다. 밀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물어뜯으라는 말이 아니라(웃음) 적는, 즉 ‘기록하는 사람만이 생존한다’는 의미죠. 교도관은 매일 근무 일지를 써야 하는데 선배들은 꼼꼼하고 자세히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늘 당부했어요. 요즘은 수행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가, 고소·고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분명히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데 석 달 전의 일을 소명하라고 하면 사실 일지를 봐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고소를 당하면 반론을 해야 하는데 반론할 근거가 없으면 자기방어를 할 무기가 없는 셈이지요. 그럴 때 근무 일지에 적어 놓은 꼼꼼한 기록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는 거칠게 살았던 사람들인 반면 교도관은 거의가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채증, 기록, 보호장비 착용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세세하게 남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수행자에게 폭행이나 고소를 당하는 일 없이 무사히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Q.** 다루기 힘든 수행자는 어느 곳이나  
존재합니다. 교감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요?

저는 수행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을 돌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건네요. 접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니의 건강도 묻고 우울해 보이는 수행자가 있으면 별일 없느냐고 관심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못다 한 이야기가 있으면 나중에 따로 불러 믹스커피 한 잔 타 주면서 또 나누지요. 주로 소외된 사람들, 고령자, 소년수, 접견인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편이에요. 문제수 같은 경우는 대화를 나누고자 해도 끝없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또 그냥 열심히 들어 주기만 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는 편이지만 사실 수행자는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열거거든요.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움도 주려고 합니다. 제게는 이 모든 과정이 수행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청진기’예요. 그들의 몸과 정신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찰이지요. 연말이면 수행자들이나 출소하신 분들에게 카드를 많이 받는데 제가 바라는 건 하나예요. 그분들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66

사실 수행자는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열거거든요.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움도 주려고 합니다.

**Q.** 교도관으로서 유독 보안과에서 많이  
근무하셨습니다. 보안과 근무자의 경우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사건·사고 한번  
겪지 않은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이를 어떻게 극복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죽음과 관련해 몇 번의 사고를 겪은 적이 있어요. 한 수행자가 밤에 갑자기 쓰러져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병원에 가려면 안동까지 40분을 달려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구급차 히터를 최대한 높이고 모포로 수행자의 몸을 감싼 채 직원은 팔다리를 주무르고 저는 계속 CPR을 하면서 갔어요. 병원에서 극적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말에 순간 안도감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죠. 또 목을 매단 수행자를 극적으로 발견하고 달려가 끈을 끊어 구해 낸 적도 있고, 자살로 사망한 수행자를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잔상이 몇 개월은 갑니다. 저는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1998년도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풀코스 56번, 100km 넘는 울트라마라톤은 12번을 뛰었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굉장히 컸어요. 당시 100kg이 넘었던 몸무게는 20kg이 줄었고 체력도 말할 수 없이 좋아졌지요. 지금도 야근하는 날을 제외하곤 하루에 운동장을 50바퀴씩 뛰고 있습니다.

**Q.** 후배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교정공무원이 예전에는 참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은 인식도 좋아지고 교도관 업무에 대해 홍보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편견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늘 직원들에게 말하는 게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국가 교정기관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Q.**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2021년에는 마라톤 완주 60회를 넘기고 한월도 지금까지 55회를 했는데 60회를 넘기고 싶어요. 제가 퇴직까지 5년 남았는데 후배들에게 좋은 감독이자 리더로 기억되고 싶은 바람도 있고요. 현장에 일이 생길 경우 늘 전력으로 짚주겠다고 해서 별명인 터미네이터였는데 앞으로도 이 별명에 걸맞게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 의욕 충만한 일터를 가꾸는 특급 비결

2021년 월간 <교정>은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을 선물하는 '교정인 원픽' 코너를 진행한다. 2021년 첫 번째로  
 방문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의 '원픽'은 무엇일까?



## 2021년 월간 <교정>이 준비한 첫 번째 이벤트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합니다”

교정공무원이란 평범하지 않은 근무 여건 속에서도 제 사명을 다하는 직업인이 아닐까. 수용자를 교정교화하고,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나 자신을 챙길 여유는 온데간데없다.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일상이 아무리 익숙할지언정 개인의 욕구와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월간 <교정>은 교정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이들이 좀 더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다. 월간 <교정>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도착한 날, 총무과에는 수요 조사를 통해 미리 주문한 물품이 담긴 상자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그 상자들을 바라보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의 표정은 민망함과 궁금함, 뿌듯함이 교차하는 듯했다. 분류심사과의 장훈 교도가 복잡한 표정을 지은 이유를 설명해주었다.

“사실 교정공무원은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음지’에 있는 직업이라 열심히 일을 해도 바깥에서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선물과 함께 격려를 해주니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더욱 꼼꼼하고 열심히 업무를 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전달한 물품에는 교정공무원의 업무 이야기와 바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동안 교정공무원에게 꼭 필요했으나 미처 구비해 놓지 못했던 물품이기도 하다. 월간 <교정>의 연락을 받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총무과 이재희 교위는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 만족하며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뭉친 근육을 풀어 피로와 작별 인사**

**‘마사지 건’**

오늘날 직장인의 애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물건은 아마도 마사지 기구가 아닐까 싶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짊어지느라 모든 직장인의 어깨는 단단히 뭉쳐 있다.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온몸이 뻣근해지기도 한다. 근육 뭉침은 누구나 겪어 봤을 흔한 경험이지만, 너무 흔한 증상이라 방치해 두기도 쉽다. 그런데 흔한 증상이라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고질병이 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때마다 병원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간단한 조작만으로 근육을 풀어 주는 마사지용품이 직장인의 필수품이 되는 건 당연지사 아닐까. 특히나 ‘마사지 건’은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는 총 8개 과에서 345명의 교정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이들 모두가 마사지 건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마사지 건 1개씩을 전달했다. 다만 인원이 많은 보안과에는 2개를 추가 배분했다. 보안과의 김지용 교도는 “야근 업무를 할 때 마사지 건을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다”며 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총무과 이재희 교위는 그동안 직원 복지 물품이 부족했던 아쉬움을 토로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보안과에는 안마 의자 같은 편의 시설이 있는데, 사무 업무를 하는 교정공무원은 피로를 풀 만한 물품이 없었어요. 그나마 보안과에 있는 편의 시설도 인원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했지요. 부서마다 마사지 건이 마련돼 이제는 모든 직원이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됐어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됨을 알아주었다는 데 더 큰 기쁨을 느끼는 듯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열심이었던 직원들은 마사지 건을 테스트하며 미소를 머금었다.



**겨울 추위 가뻔히 이겨 내고 면역력도 UP!**

**‘온열 전기방석’**

체온이 1℃ 떨어지면 면역력이 10~15% 감소한다고 한다. 개인의 면역력이 중요한 요즘, 바이러스나 세균 등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려면 체온 유지가 필수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사무실에서 내 마음대로 난방을 틀기란 쉽지 않다. 각자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른 데다 장시간 난방을 틀면 환기가 안 돼 갑갑해지기 때문이다. 이럴 때 ‘온열 전기방석’은 다른 사람의 컨디션을 신경 쓰지 않고도 따뜻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물건이다. 추위를 많이 타는 직원들이 사무실 의자에 놓고 쓸 수 있도록 ‘온열 전기방석’도 준비했다. 교정시설에서는 화재 위험 때문에 온열 기구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전기 충전 방식이라 화재 위험이 적어 사무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복지과의 안세환 교도는 “여성 직원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게 건강 유지의 첫 단계이다. 온열 전기방석이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복지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세환 교도는 자신보다 다른 직원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챙겼다. 이는 선물을 펼쳐 보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한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선물을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항상 남을 배려했던 습관은 숨길 수 없었다. 나눔의 자리가 더욱 훈훈하게 느껴졌다.

**이 시대의 필수품이자 감염 예방의 보루**

**‘KF94 마스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업무 중에는 물론 식당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지 오래다. 특히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교정시설의 수용동은 세심한 방역 관리가 요구되는 장소이다. 각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위한 KF94 마스크 기부가 줄을 잇는 이유이다. 하지만 정작 수용자와 밀접 접촉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교정공무원의 건강이 곧 수용자의 건강 그리고 방역과 연결되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교정공무원에게 선물한 ‘KF94 마스크’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사회복지과의 김대환 교도는 그 마음에 보답하듯 감염 예방을 또 한 번 다짐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벌써 1년여가 지났습니다. 많은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네요.” 김대환 교도는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 선물을 받아 더 벅차다고 했다. 그래서 월간 <교정>과 함께 이번 이벤트를 준비해 준 총무과 이재희 교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재희 주임님은 비록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 함께하고 싶은 선배입니다. 항상 후배들을 잘 챙겨 주시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이벤트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은 잠시 쉬어 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돋보였던 교정공무원들에게 일상의 작은 행복이 이어지리라 믿는다.





# 노을 빛어내는, 포구와 갯벌 화성&안산

매호 '힐링 메신저'에서는 교정시설 인근의 유명 관광·여행지와 지역 음식을 소개한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자리한 화성과 안산의 포구는 노을에 물든 바다가 함께한다. 섬과 바다에서 물으로 변한 사연이 깃든 공간도 응크리고 있다. 바닷길 열리고, 풍력발전기 돌아가는 고즈넉한 바다는 상념을 더한다.

## 대부도 탄도항, 낭만적인

### 풍력발전기

대부도 탄도항의 풍경은 낯설다. 바다와 물 사이로 낮게 깔린 도로가 떴다 잠겼다 하기를 반복하면 이국적인 풍력발전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탄도항은 10여 년 전만 해도 세간에 잘 알려진 포구가 아니었다. 포구 건너 전곡항에서 세계요트대회가 열리고, 동화 속 풍경처럼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다.

과거 탄도항은 주변에 참나무 숲과 검은 돌이 많아 '숯무루'라고 불렸다. 시화방조제가 생기기 전에는 경기도 화성 마산포에서 배를 타야 닿을 수 있는 외딴섬이었다. 탄도항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노을과 일몰 풍경 때문이다. 풍력발전기 너머로 해가 지는 포구는 사진 애호가들의 단골 포인트가 됐다.

탄도항에는 서해안 갯벌의 생태계를 한데 모은 어촌민속박물관도 자리하고 있다. 선박 외관의 전시관에서는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고기잡이인 '돌살'과 풍어제 '둔배미 놀이' 등 이 지역 어민들의 삶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 썰물 때 바다 열리는

### '누에섬'

탄도항에서 바다 건너 누에섬까지는 갈라진 바닷길을 따라 산책이 가능하다. 바닷길은 하루 4시간씩 두 차례 썰물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바닷물이 빠지고 갯벌과 함께 섬을 잇는 길이 운곽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의식을 치르듯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누에섬은 멀리서 보면 누에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주변은 대부도, 제부도, 선감도, 불도, 탄도 등 크고 작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다. 누에섬까지 오가는 길에는 '부부바위'로 불리는 작은 돌섬도 보인다.

누에섬 안에는 등대 전망대가 들어서 있다. 전망대 1층에는 누에섬 인근 바다를 소개하는 체험관이 있으며, 2층에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등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기원전 280년경 세워진 세계 최초의 등대인 이집트 파로스 등대부터 한국 최초(1903년)의 등대인 인천 팔미도 등대까지, 흥미로운 비교가 가능하다. 3층 전망대에 오르면 인근 섬과 바다가 아득하게 내려다보인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선도 섬 길목을 스쳐 지나다.

## 공룡 화석 생태 보고

### 시화호

대부도 북쪽은 바다에서 육지로 변신 중인 시화호와 연결된다. 화성 시 송산면 고정리의 우음도 일대는 공룡 알 화석이 대량 발견된 뒤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30여 개 둥지에서 발견된 지름 15cm의 공룡 알이 300여 개이다. 이곳 '공룡알 화석산지'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2000년 3월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됐다. 공룡알 화석산지 일대는 변해 가는 시화호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보고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갯벌이 물으로 변하면서 염분을 먹고 자라는 염생 식물과 육지 식물이 공존한다. 손가락 마디만 한 작은 식물들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롭다. 바닷가에 사는 통통마디는 대부분 자취를 감췄지만 갯질경이나 칠면초 등은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바다였던 곳에 들판처럼 버드나무도 자라고 있다. 시화호 안쪽 약 99만 2,000㎡(30만 평)에 조성된 비봉갈대습지도 함께 둘러볼 만한 곳이다. 이곳 습지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한가로운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시화호 어섬으로 향하면 초경량 항공기 체험 공간이 이어진다.



## 호젓한 해변 산책의

### 제부도

대부도 남쪽의 제부도는 하루 두 차례 길이 열리는 인연의 섬이다. 해수욕장이 드문 경기도에서 '모세의 기적'과 모래사장을 오롯이 갖춘 곳이기도 하다. 해안선 둘레가 12km인 작은 섬에서는 각종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썰물 때는 조개를 주울 수 있고, 밀물 때면 낚싯대로 망둥이를 잡아 올리는 재미가 독특하다. 제부도 해변은 위치마다 다른 느낌을 전한다. 대표적인 놀이터가 된 서쪽 제부해수욕장은 모래가 가늘고 깨끗하다. 나무숲도 잘 가꿔져 있다. 모래 해변은 나무다리가 놓인 해변 산책로로 호젓하게 이어져 가족들의 쉼터가 됐다. 바위가 성기성기 모여 있는 매바위 근처에는 굴 껍질이 가득하다. 매바위는 40년 전만 해도 두 개의 바위였는데, 지금은 바람과 파도에 패어 마치 네 개의 기둥처럼 보인다. 제부도에서는 갈매기가 뒤뚱거리는 갯벌을 거니는 것 자체가 살갑고 흥미로운 체험이다.



## '화성 8경'의 공평포구 낙조

제부도를 비껴가면 공평포구와 닿는다. 공평포구는 공평에서 매항까지 우정방조제가 들어서면서 규모가 제법 커졌다. 해 질 무렵 공평포구는 화성 8경의 하나인 '공평낙조'가 해변을 단장한다. 입파도를 배경으로 넘어가는 일몰이 너무나 아름답다.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아침 경매 때 선착장을 찾으면 요동치는 뱃사람들의 호흡과 함께 소라, 돌게 등을 즉석에서 구입해 맛볼 수 있다. 송림이 있는 공평리에서 백미리로 이어지는 2km 갯벌은 화성 지역에서 갯벌의 생태가 잘 보존된 곳이다. 우정방조제에서는 변해 버린 포구의 흔적을 음미해 본다. 우정방조제가 삼킨 왕모대, 매항리 포구는 옛 청취만 아련하게 남았다. 공평포구 초입의 왕모대 포구에는 왕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성을 쌓았다는 전설이 아련하게 전해 내려온다.



## 직판장에서 맛보는 **활어회&바지락칼국수**

화성과 안산의 포구에서는 현지에서 직접 해산물을 맛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탄도항에는 이곳 어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직판장이 들어서 있다. 난전 형태의 횡집들을 철거한 뒤 완공한 수산물 직판장 1층에는 횡집들이 가득하다. 물때에 따라 경매도 이뤄지는데 가지미, 주꾸미, 광어, 물메기 등 싱싱한 제철 활어를 맛볼 수 있다. 이곳 수산물 직판장은 횡감과 함께 다른 해산물이 식탁에 올라 입을 즐겁게 한다. 굴, 소라, 멍게, 조개탕, 새우, 낙지, 돌조개, 해삼 등 10여 가지 해산물이 곁들여진다. 1층에서 횡감을 정하면 2층에서 자리를 잡고 회를 맛보게 되는데, 이곳 2층 전망이 일품이다. 저녁 무렵이면 노을 지는 누에섬과 풍력발전기를 바라보며 '감동의 회 한 점'을 맛볼 수 있다. 공평항에도 낙조를 바라보며 회를 맛볼 수 있는 수산물 직판장이 들어서 있다. 포구 직판장은 관광지 횡집들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고 양은 푸짐한 편이라 가족들이 부담 없이 찾기에 좋다. 대부도, 제부도 일대는 바지락 칼국수로 명성이 높다. 칼국수에 들어가는 바지락은 서해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이곳 바지락은 살이 탄실하다. 통통한 바지락을 먼저 맛본 뒤 쫄깃한 칼국수에 젓가락을 대는 게 식감을 높이는 수순이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음식을 포장 또는 배달해 먹는 직장인이 늘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또한 넘쳐나는 상황이다. 개인이 작은 수고만 감수한다면 버려지는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의 지구 환경을 위해 교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 STEP 1

#### 두말하면 잔소리! 음식물은 완전히 비우기

기본을 지키지 않아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 폐기 되는 경우가 많다.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배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은 당연히 안에 든 음식물을 비우는 것이다. 그런데 귀찮다는 이유로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도 많은 실정이다. 재활용 수거·선별업체에 따르면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플라스틱 용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반드시 음식물을 비우고물로 헹군 다음 분리 배출해야 한다.

### STEP 2

#### 미끈거리는 기름과 빨간 자국은 솔로 문지르기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재활용할 때 가장 큰 골칫거리는 기름기와 빨간 자국이다. 물로 아무리 헹구어도 어지지 않으니 말이다. 이럴 때는 청소할 때 쓰는 솔이나 다 쓴 칫솔이 좋은 설거지 도구가 된다. 솔에다 소량의 세제를 묻혀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몇 차례 문지르면 기름기와 빨간 자국이 쉽게 없어진다.

**Tip** 지워지지 않는 빨간 자국은?

아무리 힘주어 닦아도 빨간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하루 정도 햇빛을 쬐어 보자. 시간이 지날수록 빨간 양념 자국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고춧가루에 있는 붉은 색 성분인 '카로티노이드'가 햇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는 성질을 활용한 재활용 방법이다.

### STEP 3

####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잘라서 따로 배출

분리수거 시에는 서로 다른 재질을 혼합하지 않고 각각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닐 코팅이 된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또 다른 미션이 남은 셈이다. 비닐은 열을 가해 플라스틱 용기에 코팅하므로 떼어 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비닐 코팅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내면 남은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가 가능하다. 그다음 비닐 코팅된 부분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자.

### STEP 4

#### 재활용 표기 꼼꼼히 살펴보기



수거된 플라스틱은 보통 동일한 재질과 원료로 된 제품을 따로 모아 다른 제품으로 가공한다. '플라스틱 OTHER'라는 마크가 표기된 배달 용기는 물질 재활용이 어렵다. 이 용기는 2개 이상의 재질이 포함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태운 다음 석탄을 대신하는 연료로 쓰는 방법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재활용 표시 마크를 잘 살핀 후 다른 플라스틱과 따로 배출하는 것이 좋다.

교정공무원이 국민 곁에 있음을 알리는 지름길은 '환경 개선'입니다. 위에 소개된 플라스틱 배달 용기 재활용 방법을 함께 실천해 봅시다. **재활용을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 **스타벅스 기프트콘(5,000원 상당)**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는 곳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 다시 채우기 위해 덜어 내는 ‘인맥 다이어트’



새해가 다가오면 새로운 계획과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기 바쁘다. 작심삼일의 굴레에서 벗어나 목표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그동안 소원해졌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모습은 새해의 흔한 풍경이다. 하지만 꾸역꾸역 채우기만 하면 탈이 나 버린다. 비울수록 더 많은 것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인맥 다이어트’를 실천한다.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인맥 다이어트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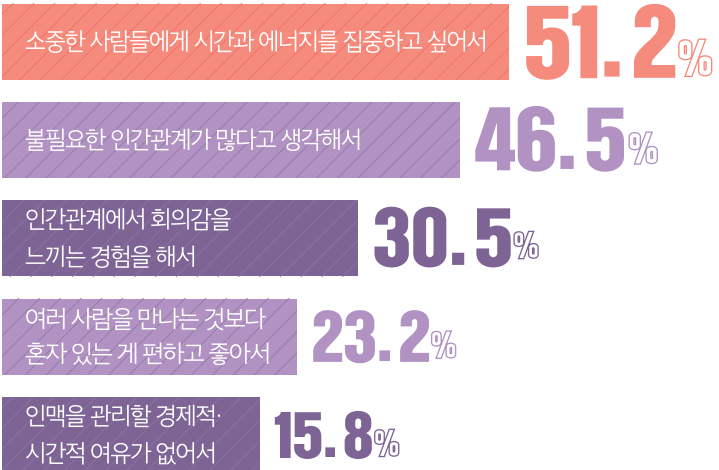
성인 남녀 10명 중 9명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인맥 다이어트’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녀 1,4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전체의 87.1%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특히 해당 답변은 직장인 그룹(87.4%)과 취업 준비생 그룹(86.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혼자만의 시간이나 심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 ‘선택과 집중’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 투자하고 싶어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어서’(51.2%)였다. 불필요한 관계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소중한 사람을 놓칠 수도 있다. 직장인의 경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은 업무 성과를 낼 때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도 적용되는 법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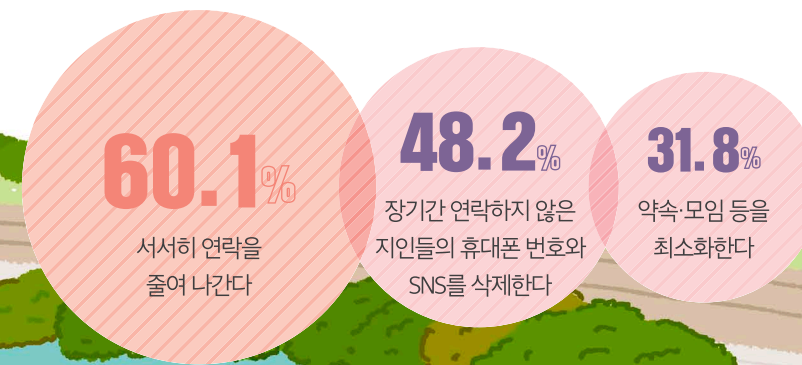
###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



### 인맥을 정리하는 방법 연락 줄이기와 만남 최소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비교적 간단했다. 서서히 연락을 줄여 나가거나(60.1%) 혹은 장기간 연락하지 않은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와 SNS를 삭제(48.2%)하고, 약속·모임 등을 최소화(31.8%)하는 것으로 인맥을 정리했다는 답이 많았다.

### 인맥 다이어트 방법



### 인간관계 Check List

비만 상태가 된 인간관계는 고정공무원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 새해 목표를 이룬 멋진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 주고 싶은가? 또 피로해진 대화를 이제 그만 끝내고 싶은 관계는 누구인가? 아래 점검표를 따라 자신의 인맥을 되돌아보고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란다.

#### 1 각종 경조사 시에만 연락하는 지인은 몇 명인가요?

- 5명 미만
- 5명 이상 10명 미만
- 10명 이상

#### 2 지인과의 연락이나 만남이 얼마나 자주 의무처럼 느껴지나요?

- 1개월에 1~2회
- 3개월에 1~2회
- 1년에 1~2회

#### 3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인은 몇이나 되나요?

- 5명 미만
- 5명 이상 10명 미만
- 10명 이상

## 끊긴 인연을 이어 주는 말하기 방법



### 오랜만에 연락하는 이유

정현종의 시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에는 “나는 가끔 후회한다 / 그때 그 일이 /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 그때 그 사람이 / 그때 그 물건이 /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라는 구절이 나온다. 우리는 당시에는 모르다가 지나고서 소중함을 알게 된다. 헤어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연락이 끊긴 관계를 아쉬워하는 데는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 내게 상담을 받던 소정 씨는 몇 년간 연락이 끊긴 친구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 친구가 진짜였다’ ‘자신의 무심함으로 그 친구와 떨어진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나는 용기를 내 연락해 보라고 했다. 하지만 소정 씨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연락해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그런 것이기도 했다. 가끔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에게 연락이 온다. 정수기 같은 걸 사 달라는 황당한 부탁일 때도 있고, 뜬금없이 교회는 어디 다니는지 묻기도 한다. 가장 싫은 상황 중 하나이다.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 하는 연락이라면 실낱같은 관계마저 끊기기 쉽다. 그러니 목적을 갖고 연락할 때는 이런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 아무리 선의를 가졌더라도 이런 연락을 반길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훨씬 쉽다. 그저 안부를 묻고 싶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싶은 것이라면 몇 가지만 잘 지켜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 오랜만에 연락할 때 처음 하는 말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사실 이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 서운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내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패심할 수도 있다. 이미 정나미가 떨어진 경우도 있다. 물론 ‘서로 바쁘다 보니 그럴 수 있는 일이지’ 하며 쿨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니 오랜만에 하는 연락이라면, 게다가 그리워한 데에 내 실수가 더 크다면 꼭 사과나 용서의 말이 먼저여야 한다. 거기다 그렇게 된 사정을 덧붙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때 연락한다고 해 놓고 미안해. 내가 무심했어! 많이 섭섭했지? 사실 내가 조금 힘든 일도 있었고 연락하기 쉽지 않았어. 변명 같지만 사정이 있었어.”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잔잔히 살피기 바란다. 나의 연락이 못마땅할 수도 있고, 그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반가울 수도 있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연락을 한 내 진심을 전하는 일이다. “네 생각이 자주 났어. 보고 싶었어. 지나고 보니 너처럼 좋은 친구도 없었는데.” 물론 이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성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또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달리할 부분도 많

다. 어쨌든 끊어진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평소 자주 건너던 개울의 징검다리를 떠올리면 된다. 개울 이편과 저편 사이를 잇던 징검다리의 돌 몇 개가 어찌다 빠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 낯설고 어색한 게 당연하다. 그간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다. 소정 씨의 친구도 큰 변화가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즈음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 친구도 소정 씨에게 결혼식에 오라고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 덕분에 두 사람은 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 대화에도 단계가 있다

예전 관계만, 그때의 그 사람만 생각하고 말을 건넸다가 이어진 관계가 끊기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말조심은 항상 필요하지만,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할 때처럼 말을 가릴 필요가 있다. 대화에도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능숙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존 파월(John Powel) 신부는 대화를, 내용과 그 깊이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먼저 1단계는 상투적인 안부 묻기이다. “요즘 바깥에 다니기 힘들지?” “잘 지내시나요?”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이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꼭 나누어야 할 말이다. 2단계는 사실과 보고의 대화이다. “얼마 전 갑수 씨도 결혼했다고 하던데.” “그때 하던 일은 계속하고 있나요?” 상대의 관심사에 부응한다면 이런 대화는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3단계 대화로 나아가는 윤희유 역할을 한다. 단, 처음부터 상대의 신상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일은 자제하는 편이 낫다. 탐색 단계를 거치면 본격적인 대화로 진전된다. 3단계는 단순히 정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말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다. “그때 우리 함께 갔던 카페의 커피가 참 맛있었지?”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척 안타깝더라.” 이때부터 관계의 보호막인 친밀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서로가 느낌, 생각, 감정, 가치 지향을 주고받으며 친밀해지는 것이다. 정서적 표현은 친밀해지는 지름길이다. 4단계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대화가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요즘 들어 부쩍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최근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존 파월 신부는 이를 ‘가슴의 대화’라고 칭한다. 서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인

간관계 안에 상대를 들이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부터 위로와 공감, 감정이입, 동일시, 격려와 칭찬 같은 긍정적인 감정 교류가 오간다.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면 내게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다. 그때는 이렇게 답하면 된다. “그랬군. 어쩐지 말에서 힘든 기색이 느껴졌어. 실은 나도 몇 가지 힘든 일이 있었어. 제일 걱정은 ○○○이야.” 정서적 소통은 피상적 관계가 질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돕는다. 이때는 양도, 질도 중요하다. 오래 대화해도 정서적 소통이 부족하면 늘 제자리이고, 서로 바빠 대화 시간이 부족해도 탈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5단계, 최상의 대화가 가능해진다. 서로 공감하며 자신의 감정, 가치, 생각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대화이다. 내밀한 속내까지 교류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예전에 잘 알던 사람이라면 빠르게 대화 단계가 진전될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불편해한다면 때때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3단계부터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보다는 직접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안전하다. 상대의 표정과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오해를 사거나 말실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상대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을 내 인간관계의 어디까지 들일 것인지 고려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은 친해지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관계가 무시로 바뀌고, 뜻대로 조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 알쓸꿀잡

##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꿀팁 잡학 사전 : 등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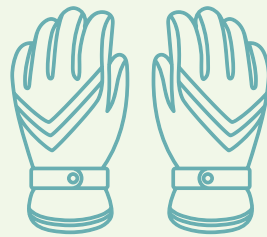
새해 첫날 마음속에 품은 다짐을 단단히 지키기란 쉽지 않다. 마음이 금세 느슨해져 애써 결심한 것들이 저만치 멀어지기도 한다. 자연을 벗 삼는 '등산'은 하이해진 마음을 정비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자 취미 생활이다. 초보자도 쉽게 등산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한다.

### 이것만은 꼭! 등산 준비물이 궁금해

# 1

#### 버프(buff) & 방풍 장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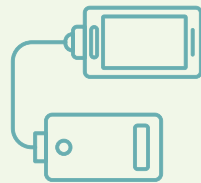
겨울에 산에 가면 고도 100m마다 기온이 약 0.5℃씩 낮아진다. 기온 변화로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방한용품은 필수다. 목에 두르는 스카프인 '버프(buff)'와 방풍 장갑은 머리와 목, 손을 통해 쉽게 손실되는 체온을 지켜 준다.



# 2

#### 보조 배터리

초보 등산객에게 산길은 복잡하기만 하다. 길을 잃었을 때 다른 사람과 연락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겨울철에는 휴대폰 배터리가 훨씬 더 빨리 방전되니 연락망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 배터리를 꼭 챙기자.



# 3

#### 고글 & 선글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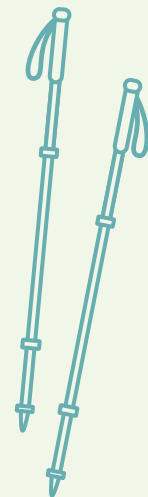
눈이 쌓인 산은 자칫 잘못하면 '설맹'이라는 안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자외선이 하얀 얼음이나 눈 위에 반사돼 안구의 수정체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설맹이 악화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글과 선글라스를 착용해 강한 반사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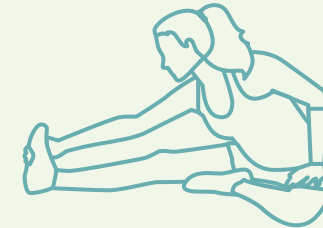
# 4

#### 등산 스틱

미끄러운 길이나 급경사 길을 지날 때 등산 스틱은 몸의 균형을 잡아 주고 척추와 무릎의 충격을 완화한다. 또 눈으로 덮인 산길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 구덩이 속에 빠지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일자형, T자형, 3~5단 등 기능별로 여러 형태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 구입하자.



### 등산 전후를 살피면 안전이 '쑹쑹'



#### 두 번 말하면 잔소리! 부상 막는 스트레칭

모든 운동이 그렇듯 등산도 준비운동이 중요하다. 약 15~30분 동안 스트레칭과 제자리 뛰기 등을 하며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풀어 주어야 한다. 겨울 산은 길이 미끄러워 발목이나 무릎을 다치기 쉬운데,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이완돼 부상 걱정을 덜 수 있다.



#### 방한용품으로도 지키지 못한 체온, 동상 시에는?

등산을 끝내고 실내로 들어왔을 때 신체가 쓰라리고 간지럽다면 동창과 동상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따뜻한 물에 동상이 걸린 부위를 담그고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발라 준다. 이때 해당 부위를 문지르면 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올바른 자세

자세가 좋지 않으면 건강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뒷짐을 지거나 손으로 무릎을 짚고 올라가면 관절에 좋지 않다.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는 느낌으로 걷고, 내려올 때는 무릎을 살짝 굽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



####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비결, 무게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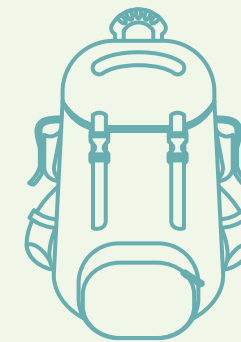
무거운 물건은 등산 가방의 위쪽에, 가벼운 물건은 아래쪽에 배치한다. 이때 무거운 물건이 등이나 어깨와 가까운 쪽에 있어야 균형 감각이 유지된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균형을 위해 물병처럼 가벼운 물건도 손에 쥐지 않고 꼭 가방에 넣으라고 강조한다.



#### 짐이 많을 때 비닐로 구분하기

1박 이상의 등산을 계획하면 짐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겂옷, 속옷, 취사도구 등 종류별로 비닐에 분리해 짐을 싸는 것이 좋다. 작은 물건 하나를 찾기 위해 등산 가방을 전부 뒤지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길이다. 비닐은 방수 효과도 있어 땀이나 비로부터 짐을 보호할 수 있다.

### 장기 산행 시 등산 가방 정석대로 꾸리기



#### 자주 쓰는 물건은 옆 주머니에

물병이나 등산 스틱, 스마트폰 등은 등산 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다. 보통 등산 가방에는 옆이나 앞에 주머니가 있으니 자주 쓰는 물건을 이곳에 넣으면 된다. 특히 장기 산행일 경우 초콜릿 등의 간식과 의약품도 챙겨야 하는데, 위급 시 빨리 꺼내야 하는 만큼 앞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재테크 어렵다고? 첫 시작은 통장 쪼개기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열기가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2020년 코스피 지수는 저점 대비 정확히 2배 올랐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 와서 시작하기엔 '너무 고점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상실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자는 소수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투자 인구는 500만 명쯤으로 추산된다. 부동산도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228만 명이다.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재테크 문외한이더라도 '나만 돈을 못 벌었어'라며 자책할 필요는 없다.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일단 투자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또는 "재테크가 너무 어려워 보여서"라고 답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재테크는 시작해야 한다. 금액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 금융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생존 필수 지식이 돼 가고 있다. 재테크를 너무 낯설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어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기 어려울 뿐이다. 단계를 밟아 천천히 시작하면 된다. 가장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통장 쪼개기'이다.



### 소비, 비상금, 투자,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통장으로 나누자

재테크의 시작은 꼼꼼한 자기 관리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출 통제이다. 이를 위해 통장을 나눠 쓰는 전략이 필요하다. 통장을 급여 통장과 생활비(소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통장으로 나누자. 여기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통장이란 연금 통장을 말한다. 100세 시대에 연금은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재테크이다(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다).

월급이 입금되면, 내가 한 달 동안 이 정도 돈만 쓰겠다고 설정한 금액에 맞춰 소비 통장에 이체하자. 너무 박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 재테크는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것이니, 스스로에게 고통을 안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방만하게 쓰지 않겠다는 목적의식이다. 카드 대금이나 전기료, 관리비 같은 것도 소비 통장에서 빠져 나가게 설정하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자동이체 대금은 되도록 비슷한 날에 나가게끔 하면 비용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슷하게라도 맞추면 혹시나 잔액이 0원이 돼 연체되는 참사는 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체일은 월급날이 가장 좋다. 비록 월급

이 스킷 사라지는 풍경을 목격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말이다.

비상금 통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해 두는 자금이다. 보통 월급의 10%를 적립해 두라고 하는데, 이 또한 본인의 상황에 맞추면 된다. 소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에 넣어 둘 금액을 정하고, 남은 금액은 투자 통장과 연금 통장으로 자동이체 설정을 해 둔다.



### 금리 지급하는 소비 통장 만들자... 투자 통장은 증권사 계좌로

필자는 소비 및 비상금 통장으로 네이버통장과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을 추천한다. 네이버통장은 미래에셋대우와 제휴해 만들어진 계좌인데, 네이버페이를 주로 사용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은 금액 제한 없이 연 1.3%의 이자를 지급한다. 저금리 시대이고, 1~3%의 이자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랜 기간 누적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익을 안겨 준다. 재테크는 꼼꼼한 자기 관리라고 앞에서 말했다. 적은 이자이긴 하지만, 허투루 돈을 놀리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2개 은행 통장은 마련해 두라고 권하고 싶다. SBI저축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통장 쪼개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투자 통장은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증권사에서 만들자. 증권사 CMA 통장도 기존 금리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현재 연 0.35% 수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상품을 투자 통장을 통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자. 삼성전자를 사도 좋고, 추가연계증권(ELS), 펀드 등의 상품을 적립식으로 편입해도 된다. 단,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소액으로 첫 투자를 경험한 뒤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다면 서서히 금액을 늘리도록 하자.



### 노후 대비에다 연말정산 혜택받는 연금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연금 통장이다. 앞으로 정부 정책은 점점 더 주거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내 집 마련을 제외하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노후 대비이다.

개인연금에 투자하면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000원(900만 원 투자 및 16.5% 환급 시)을 돌려받는다. 세액공제에다 노후 대비라는 이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재테크가 바로 연금 투자이다. 만 50세 이상은 개인연금 60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IRP)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되고, 50세 이하는 각각 400만 원, 3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 꼭 직장인이 아니라고 해도 연금 통장은 필요하다. 자영업자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설령 프리랜서라고 해도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원금에 대한 연금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연금 투자는 TDF(Target Date Fund)를 추천한다. TDF란 투자자의 은퇴 시기를 목표 시점(target date)으로 해 생애 주기에 따라 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 배분 펀드이다. 상품명에 2040이 붙어 있다면 2040년에 은퇴하는 사람을 위한 펀드라는 뜻이다. TDF 상품은 수많은 자산운용사에서 내놓고 있는데, 필자는 KB자산운용의 '온국민' 시리즈를 추천한다. 그 이유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노후는 너무 길고, 대부분의 사람이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후에도 내가 나답게 살려면, 꼭 금전적인 상황이 뒷받침돼야 한다.



# 그렇게 <싱어게인>은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잘 아는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에 대하여



'또?'라는 물음표가 절로 떠오른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 한다니, 보기 전부터 식상해지는 기분이다. 그만큼 기억에 남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날 확률도 내가 산 주가처럼 떨어지는 느낌이다. 사실 지금도 적지 않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하지만 리모컨 채널을 돌리는 손가락의 관성을 막을 만큼 마음을 사로잡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기억은 그만큼 드물고 또 드물다.

JTBC의 <싱어게인>은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아직 무대를 꿈꾸는 모든 가수의 한 번 더 오디션'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흔한 K팝 아이돌 그룹을 조직하겠다는 야심도, 뜨거운 트로트 열풍에 탑승하겠다는 욕망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퇴물이라 불리는 혹은 퇴물이라 불릴 기회조차 얻지 못한, 무명이 됐거나 애초에 무명이었던 가수들이 무대에 등장해 노래를 하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자격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활자로만 봤을 때에는 딱히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겠지만 <싱어게인>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새삼 깨닫게 만드는 저력을 보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 <슈가맨>과 <팬텀싱어>

지난 2020년 11월 16일에 방영한 <싱어게인>의 1회 시청률은 3%대를 기록했다. 그리고 3회 만에 7%대의 시청률을 기록한 뒤 7화까지 꾸준하게 6~7%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화제를 모은 비결은 바로 참가자들의 무대에 있다. <싱어게인>의 참가자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기 때문에 무대에 오를 때까지 그 정체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막상 노래를 시작하면 너무 익숙한 곡이라 노래하는 얼굴을 멍하게 쳐다보는 경우가 적잖게 이어진다. 그리고 처음 보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노래를 하는 순간 낯설던 얼굴이 강렬한 첫인상으로 돌변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JTBC의 <슈가맨 프로젝트>와 <팬텀싱어>를 연상시킨다. 한때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가수를 다시 무대로

소환해 그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고 후일담을 들려준다는 <슈가맨 프로젝트>, 그리고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낯선 성악가나 뮤지컬 배우를 한데 모아 경연을 펼쳐며 스타성을 얻은 4중창 팀을 만드는 <팬텀싱어>의 성공 사례가 다방면으로 잘 이입된 결과처럼 보인다. 실제로 <싱어게인>은 <슈가맨 프로젝트> 제작진이 대거 참여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싱어게인>은 대중이 바라는 노스텔지어를 제공해 본 경험이 충분한 제작진의 노하우가 잘 적용된 스피노프인 셈이다.

## 심사위원의 눈물

<K팝스타>의 심사위원을 맡았던 박진영의 '공기 반 소리 반' 발언은 지금도 회자되는 이슈이다. 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의 존재감이 얼마나 막대한가를 대변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은 참가자보다 먼저 인식되는 존재이다. 그만큼 심사위원의 존재감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종종 독설에 가까운 심사 평을 통해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심사위원이 해당 프로그램의 아이콘이 된 경우도 생겨난다. 하지만 참가자보다 심사위원의 존재감이 두드러진 오디션 프로그램이란 실질적으로 실패한 결과나 다름없다. 속된 말로 망한 것이다.

<싱어게인>에는 여덟 명의 심사위원이 등장한다. 각기 연령대가 다르고, 음악적 지향점도 다채롭다. 각자의 세대와 추구하는 장르가 다르니 동일한 경연자에 대한 평가가 종종 엇갈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다양한 관점을 수용한 심사라는 측면에서는 공정성이 강화되는 인상이자. 그리고 각자의 입장대로 투표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출연자의 탈락 여부를 가리니 민주주의적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심사위원들의 코멘트가 지나치게 가혹하지도, 관대하지도 않은 적절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인상이란 점에서 보기에도 편안하다. 무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적당한 활기를 불어넣는 이승기의 진행도 매끄럽다.

심사위원은 경연의 평가자이기도 하지만 공연의 관객이기도 하다. <싱어게인>은 종종 참가자의 경연에 몰입한 심사위원의 표정을 비추며 해당 무대가 전하는 감동과 흥

분이 진짜라는 것을 실감하게 만든다. 그러다 간혹 몇몇 심사위원이 흘리는 눈물을 마주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누구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심사위원이 눈물을 흘리다니 전문가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결국 노래는 마음을 울리는 것이고, 무대에 선 경연자의 간절함이 반영된 무대를 마주하는 심사위원 역시 한 사람의 청중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심사위원의 눈물은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창과 같은 노릇을 한다.

## 스타 탄생

오디션 프로그램은 필연적으로 냉혹한 무대이다. 누군가에게 다음 무대가 허락된다는 건 누군가는 다음 무대를 허락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연적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무대는 넓어지는 반면 무대에 설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막상 무대에 선 사람에게 소중할 건 당장 그 무대에 섰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 무대를 헛되지 않게 배려하는 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쟁력이나 다름없다.

<싱어게인>은 여타의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시쳇말로 '사연팔이'에 골몰하는 기색도 없고, 시청자의 궁금증을 인질 삼아 불필요한 반복을 거듭하는 편집 따위를 동원하지 않는다. 참가자의 노래가 시작되면 그 무대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인상이자.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공연을 보는 재미로 망라된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그 덕분에 뛰어난 공연을 펼친 참가자는 그만큼 주목받게 된다. 여전히 무명 가수라 불리지만 경연에 계속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 이상 무대 위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를 온전히 참가자의 몫으로 배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싱어게인>은 매년 찾아오는 무대가 어떤 결과로 종착할지 모른다 해도 무대에 선 참가자를 매 순간 빛나는 별로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는 프로그램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빛나는 것에 끌리게 돼 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별을 가리키듯 스타가 탄생할 무대를 기대한다. <싱어게인>은 그걸 잘 아는 프로그램처럼 보인다. 그렇다.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Health Infographics

# 바로 서는 힘, 당신의 '발'은 건강한가요?

제2의 심장으로 불리는 발은 무려 107개의 인대와 26개의 뼈, 19개의 근육으로 구성돼 있다. 양발의 뼈는 몸 전체 뼈(206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때문에 발의 건강 상태는 다른 신체 부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발과 관련된 질병과 그 원인을 알아보고 미리 예방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보자.

## 아킬레스 건염

- 정의** 장딴지 근육과 발뒤꿈치 뼈를 연결하는 부위의 힘줄에 염증이 생겨 부종과 통증이 일어나는 질환
- 원인** 지나친 달리기 또는 운동, 잘못된 보행 자세, 비만으로 인한 하체 부담 증가

## 스트레스성 골절

- 정의** 질환이나 외상이 없음에도 뼈가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뼈조직에 발생하는 가느다란 실금 형태의 골절
- 원인** 고강도 신체 운동이나 점프 등 발에 무리가 가는 활동의 반복, 까치발로 걷는 습관, 딱딱한 신발 착용

## 지간신경종

- 정의** 발가락 사이를 지나는 지간신경이 두꺼워져 걸을 때마다 발바닥 앞쪽이 타는 듯하고 찌릿한 질환. 보통 2~3번째 혹은 3~4번째 발가락 사이에 통증 발생
- 원인** 자신의 발보다 작은 신발, 굽 높은 구두를 착용함으로써 지속된 신경 압박

## 발목 염좌

- 정의** 발목 인대가 사고, 외상 등으로 손상돼 부종이나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
- 원인** 격한 운동,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강한 충격이 가해진 사고

## 무지외반증

- 정의**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심하게 휘어 엄지발가락 관절이 튀어나오는 질환
- 원인** 선천적인 평발, 잘못된 자세, 앞코가 좁은 신발 및 구두 착용

## 발톱 무좀

- 정의**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이 침입해 발톱이 두꺼워지고 갈라지며 부서지는 전염성 질환
- 원인** 다한증, 통풍이 잘되지 않는 신발 착용, 당뇨나 HIV 등 면역계 이상, 대중목욕탕 및 사우나 이용 시 감염

Healthy Guide

# 발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발에 쌓인 피로를 풀어 주고 간단하게 관리하는 작은 습관을 길러 보자. 다음 날에도 힘찬 걸음을 내디디며 활동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방전된 발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 근육의 힘 기르기

발목 및 발가락, 아킬레스건 근육을 강화하고 회복시키는 방법



### 01 뭉친 발 근육 이완

테니스공처럼 단단한 볼을 발 밑에 놓고 지압하듯 굴려 주기



### 02 혈액순환 촉진, 피로 해소

약 35~40℃의 미온수에 복사뼈까지 발을 담그고 10~15분간 유지



### 03 발 근력 강화

까치발, 발가락 벌리기, 발가락으로 물건 쥐기 등으로 발 근육에 자극 주기

## 후유증 예방하기

건강한 발을 위해서는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



### 04 세균 번식 방지

발가락 사이까지 물기를 잘 닦고 건조하지 않도록 로션 바르기



### 05 내성발톱 관리

발톱이 살을 파고들지 않도록 일자로 깎기



### 06 근육과 인대 마사지

통증 발생 시 손이나 전기 마사지 기구로 꾸준히 마사지하기

겨	
울	코
이	끝
	에
느	
친	
다	

❄ 나는 겨울이 좋다. 문밖을 나서면 느껴지는 매서운 아침 공기, 시린 손을 끌고 쿵쿵한 실내에 들어온 다음 따뜻한 히터 앞에 앉아 느끼는 노곤함이 좋다. 한겨울 눈이 소복이 내려 앉아 온 세상이 하얘질 때면 몽클해지며 마음 한편이 아릿한 느낌이 들 만큼 겨울이 좋다. 누군가 내게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무어나고 물어 올 때마다 나는 단 한 번도 자신 있게 대답한 적이 없다. 다만 각각의 계절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기보다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겨울은 매섭게 추워서 힘들지요”라고 답했을 뿐이다.

❄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여태껏 나는 겨울을 가장 좋아했던 것이 틀림없다. 겨울의 추위는 매섭다. 그렇지만 싫은 것만은 아니다. 추위에 떨다 따뜻한 실내에 들어가 몸을 녹이는 것, 그만큼 마음을 녹여 주는 기분 좋은 것이 또 있을까? 겨울을 떠올리면 여름보다 더 많은 추억이 나를 감싸 온다.

❄ 나 홀로 한겨울의 이웃 나라 홋카이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대학생 시절, 방학마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으로 떠났던 첫 해외여행이라 개인적으로 도전적인 의미가 컸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첫 해외여행은 꼭 내 키보다 높이 쌓일 만큼 눈이 많이 내린다는 홋카이도로 가 보고 싶었다. 수능을 앞둔 고3 시절 KBS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 속으로-홋카이도> 편을 보고 눈이 건물보다 높이 쌓인 세상이 궁금해 여행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시베리아기단의 혹독한 추위에 대비해 준비도 단단히 하고 떠났다. 한겨울에도 얇은 코트로 버티던 내가 기능성 패딩 점퍼에 무릎까지 오는 방한 부츠까지 구비했다. 홋카이도의 여러 곳을 다녔다. 눈발이 끊임없이 펼쳐지던 ‘비에이’, 야경이 절경이던 ‘하코다테’,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라는 ‘오타루’... 눈이란 눈은 소원했던 만큼 다 보고 온 것 같다.



도전 없는 내 인생은 지금 겨울을 마주하였다.  
 어서 이 추운 겨울의 해태를 깨어  
 다가올 봄의 도전을 맞이해야 할 일이다.

❄ 그 많은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달리는 기차에서 바라본 눈 쌓인 풍경이었다. 온 세상 가득 쌓인 설국의 풍경, 기차 소리, 따뜻한 기차 안. 이 삼박자는 지금도 겨울이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 우리는 여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자주 만나 볼 수 있다. 낯선 이국땅 오타루의 길거리 트럭에서 맡았던 익숙한 한국의 냄새, 군고구마였다. 고작 5박 남짓한 여행이었지만 3일 차부터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나로서는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장갑을 꺼도 손이 너무 시렸던 순간, 트럭에서 파는 군고구마를 꺼내어 들고 손을 녹였다. 김치가 있었더라면 더 완벽했을 것이지만 그런대로 됐다.

❄ 호기롭게 혼자 떠나왔지만 막상 함께 여행하는 다른 가족들을 보니 한기가 더욱 서리는 듯했다. 초겨울인 11월경부터 군밤 장수 아저씨가 같이 팔던 고구마를 유독 좋아했던 그 리운 할머니가 생각났다. 만약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면 어디 온천 여행이라도 함께할 수 있었으리라. 씩씩한 마음을 접어 두고 다시 설국 여행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내 눈과 마음속, 오래된 필름 카메라에 담아 온 아름다운 설국의 풍경들. 지금처럼 차가운 겨울 공기가 코끝을 스쳐 올 때면 그 순간이 생각나고는 한다.

❄ 공직 생활을 하는 지금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권태를 느끼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귀찮고 성가시다. 어쩌면 시국을 틈타 타고난 내 게으름으로 모든 호기로운 일상을 덮고 있는 게 아닌가? 얼마나 아까운 청춘인가.

❄ 도전 없는 내 인생은 지금 겨울을 마주하였다. 어서 이 추운 겨울의 해태를 깨어 다가올 봄의 도전을 맞이해야 할 일이다.

소중한 작품을 보내 주세요.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담은 원고를 보내 주세요. 투고해 주신 작품은 다른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 일기'에 게재됩니다.

보내는 곳  
 correct2015@naver.com

원고 투고 혜택  
 문화상품권 10만 원

용	서	를	비	는	
		참	회	의	글

● 며칠 전 제가 4-5년 전부터 화단에 씨를 심어 가꾸던 감나무, 오렌지나무, 살구나무 등이 보안 장애물로 지정이 돼 잘려 나갔습니다. 아직 묘목에 불과해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는 나무였는데 애꿎게 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나무가 맥없이 잘려 나가는데도 막아서거나 화조차 낼 수 없으니 가슴이 아리며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저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웠을까 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 잘려 나가는 나무를 보며 지켜 주지 못한 미안함과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며 피해자분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인성이 바로잡혀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 예전에는 사건이 있었던 그때의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었기에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싶고 망각하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다 보니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잘못을 생각하는 순간 죄책감이 너무 크게 밀려와 멘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무슨 염치로 용서를 구할 것이며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면 어떻게든 용서를 빌어 볼 마음을 갖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피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용서를 바라고픈 마음조차 가지지 못할 정도로 용기도 없었습니다.

● 24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악몽을 꾸고 있으며, 악몽을 꾸는 날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전 악몽도 너무 자주 꾸다 보니 만성이 된 것인지 두려움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져 그제야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도 봉인된 기억 속에서 조금씩 끄집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성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의 크기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에 죄책감을 견디기 힘들어 부끄럽게도 죄를 부정하고 망각하려 했습니다. 당장은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죄책감을 피하려다 보니 실제로 사건이 있었던 날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날이 기억나지 않으며 두려운 마음에 억지로 기억해 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짜만 잊어 버렸지, 그 순간의 현장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더욱 또렷해져 시도 때도 없이 악몽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제가 깨달은 것은, 지우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억된 그대로를 성찰하고 뉘우쳐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참회하고 속죄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할 때 비로소 조금씩 안정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흉악범이지만 앞으로는 선행함으로써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 진정한 참회와 뼈저린 후회 속에서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로 위로될 수 없고 용서를 구할 만큼 대단한 말이나 문구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에 용서를 구한다는 말조차 하기 힘듭니다. 다만,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싶어 이 지면을 통해 끝없이 사죄드리며 용서를 비는 참회의 글을 영구히 아로새겨 놓고자 합니다.

●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정말로 송구합니다.

●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저로서는 참회하고 사죄드리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로 인해 저의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저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응어리진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고통을 가중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 너무 많이 늦었지만 삼가 애도를 표하며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의 죄에 대한 벌은 피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가슴에 응어리진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시길 진심으로 빌며 기도드립니다.

# 판결문을 통해 본 수용자 학습권 분석\* ①

유주영\*\*·강대중\*\*\*



## 목차

- I. 서론
- II. 학습권의 개념과 성격
- III. 수용자 학습권에 관한 판례
- IV. 수용자 학습권 판례에 담긴 판단 논리 분석
- V. 논의 및 결론

\* 교정연구 제29권 제4호 통권 제85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 접수일(2019. 12. 8.) 심사일(2019. 12. 18.) 수정일(2019. 12. 23.) 게재확정일(2019. 12. 26.)

1) 1982. 7. 27. 80누86.  
 2) 2016. 12. 29. 2013헌마142.  
 3) 2014. 1. 28. 2012헌마409.  
 4) 1999. 3. 25. 결정, 97헌마130

## 국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학습권이 수용자에게 보장되어 온 역사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과거 형무소(刑務所)에서 수용자는 형벌의 대상이었지만 교육형주의를 표방하는 교도소(矯導所)에서 수용자는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矯正敎化)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다양한 권리 가운데 학습권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교정교화와 학습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 역시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나 운영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학습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심화 이해는 교정교화의 원리와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수용자 학습권 판례는 교육받을 권리, 읽을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판례에는 쟁점에 기초하여 수용자 학습권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쟁점은 크게 교정시설의 목적,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되었다. 수용자 학습권은 시대에 따라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논리는 질서유지라는 관리 목적이 교정시설에 강하게 불박여 있기 때문이었다. 교정교화가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자의 학습권은 체계적으로 가능한 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이해는 수용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수용자의 학습에 중요한 조건에 대한 실천적 탐색이 필요하다.

주제어 교정교화, 학습권, 수용자 학습권, 수용자 권리, 판례분석

## I. 서론

수용자의 법적 지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과거 응보주의를 추구하던 형무소(刑務所) 시대 수용자는 “법적으로 죽은 자”(이연담, 2015, p. 45)로 인식되었다. 수용자는 형벌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1961년 형무소에서 교도소(矯導所)로 명

칭이 변경되면서 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교도소는 교정교화(矯正敎化)를 목적으로 한 교육형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법무부, 2007; 유주영, 2014; 조기룡, 2007; 민선홍, 한선아, 2019). 교육형의 대상으로 수용자는 형벌의 대상인 동시에 교육의 대상, 즉 학습을 통한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담지한 주체로 인식된다. 교육의 대상이자 학습의 주체로서 수용자에게는 과거와 다른 법적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이는 수용자의 권리 확장 및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은 1982년 특별권력관계에 있어 위법하고 부당한 특별 권력의 발동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는 그 처분을 취소 처분할 수 있다<sup>1)</sup>고 하여 국가와 수용자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와 복종 관계를 부정하였다. 헌법재판소도 “행정청(교정시설)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그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1993. 12. 23. 92헌마247)고 하여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특별권력관계가 부정되고 이에 따라 수용자의 권리가 확장되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목적을 교정교화로 분명히 하고 있다. 교정교화는 수용자의 다양한 기본권과 관련된다. 교정교화에 있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 연구(신용해, 2012; 유주영, 2014; 이백철·조극훈, 2015; 천정환, 2015; McKinney & Cotronea, 2011; Kallman, 2019; Vandala, 2019), 종교가 중요하다고 본 연구(김안식, 2010; 유병철, 2011), 직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연구(오원선, 2003; 김기홍·최은하, 2011) 등은 교정교화가 헌법상의 교육받을 권리, 종교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저해한다는 판례<sup>2)</sup>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교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례<sup>3)</sup>는 교정교화가 행복추구권이나 참정권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교정교화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정시설이 교육형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점(임복재, 2001; 강영철, 2006; 법무부, 2007; 조기룡, 2007; 조흥식·이형섭, 2014)에서 수용자의 다양한 권리 가운데에서도 교육받을 권리, 나아가 학습권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

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학습권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학습권은 학교교육을 받는 아동, 청소년이나 특별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아닌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다(강대중, 2019). 유네스코는 1985년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학습권 선언을 채택하며, 학습권을 생존의 필수적인 도구로 천명한 바 있다. 학습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 존재 조건이기 때문에 학습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모든 권리가 허울만 남게 된다(김신일, 2002). 수용자에게도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이용식, 2018) 학습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교정교화를 위한 학습권은 교정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교육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읽고 쓸 권리 등 수용자가 학습을 자기 주도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리도 포함한다. 그러나 수용자의 학습권은 그 보장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학습권 자체가 1997년 「교육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학습권이 수용자에게 보장되어 온 역사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의 누적은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며 법적인 규범을 형성한다(홍완식 외, 2015). 수용자의 다양한 기본권과 관련된 판례는 수용자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어 왔다(이호중, 2004). 따라서 수용자의 학습권과 관련된 판례는 수용자 학습권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 확장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라 할 수 있다. 수용자의 학습권 제한이 위한 위법하다는 판결에는 수용자 학습권 확대의 논리가, 반대로 각각·각하된 판례에는 제한하는 논리들이 담겨 있다. 학습권을 확대 혹은 제한하는 논리는 시대마다 수용자 학습권을 바라보는 법원의 사고 체계도 담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 학습권 판례분석은 수용자 학습권 보장에 있어 주요 쟁점과 이를 해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학습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정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민선홍·한선아, 2019; 신용해, 2012; 유주영, 2014; 이백철·조극훈, 2015; 조

극훈, 2015; 천정환, 2015). 일부 소수의 선행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활동이 수용자의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홍명자, 2003; 전석환, 2018). 수용자의 학습권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이 논문은 수용자에게 보장된 구체적인 학습권을 고찰하는 동시에 학습자로서 수용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학습권의 개념과 성격

### 1. 학습권의 개념

1985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차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는 학습권의 내용을 “읽고 쓸 권리, 질문하고 분석할 권리, 상상하고 창조할 권리, 자신의 세계를 읽고 역사를 쓸 권리, 교육 자원에 접근할 권리,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권리”로 선언했다. 유네스코는 학습권이 “인류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헌”이며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라고 천명하였다. 학습권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UNESCO, 1985). 학습권은 1997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제5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다시금 강조되면서 인간의 중요한 권리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함부르크 회의에서는 모든 이를 위한 성인학습(Adult learning for all: the rights and aspirations of different groups)을 토론했으며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교도소의 수용자도 언급하였다. 교도소 수용자에게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정보와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정부기구와 교사들이 교도소에서 교육활동을 하도록 장려할 것을 명시하였다. 즉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학습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환기한 것이다(UNESCO, 1997).

학습권의 개념과 내용과 관련하여 김신일(2002)은 학습권을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할 권리를 뜻하는 교육권과 대비시키면서 누구로부터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으로 정의했다. 김신일은 학습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습권의 내용으로 학습할

동의 자유, 학습기회의 보장, 교육선택의 권리, 교육에 관한 결정과정의 참여권, 지식과 사상창출의 자유를 제시했다. 최돈민(2003)은 학습권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어떤 장애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천정승(2003)은 학습권이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의 권리이자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권리라고 하며, 학습권과 교육권은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김철수(2008)는 교육할 권리인 교육권에 대응하는 것을 학습권으로 보고 민주적인 국가사회의 담당자를 육성하는 국민적 의무와 책임 및 권한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자들은 학습권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본 권리이고, 보편적 권리로 보았다. 학습권을 교육할 권리를 뜻하는 교육권과 대응관계로 보는 입장(김신일, 2002; 김철수, 2008)과 상보적 관계(천정승, 2003)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학습권을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은 공통적이다.

정리하면, 학습권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이고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이다. 학습권은 교육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읽을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 2. 학습권의 성격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은 국가의 침해보부터 자유로운 권리로서의 학습권과 국가가 형성하고 보장해 주어야 하는 책임으로서의 학습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기오, 2018). 전자는 자유권적 학습권이고, 후자는 국가에 대한 사회권적 학습권이다. 학습권은 저항적인 자유권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실정법에 의해 보편적 필요에 의한 복지권도 포함하는 권리다(최돈민, 2003). 다시 말하면, 학습권은 자유로 주어지는 자유권적 성격과 책임과 의무의 사회권적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권적 성격으로서의 학습권은 소극적으로 학습할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필요한 학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황준성, 1998). 사회권적 성격으로서의 학습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배려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이수광, 2000).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구분하여 보는 입장에서

는 학습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자유 권적 속성이 있으며,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기회와 관련되는 청구권적 속성이 있다고 하였다(김신일, 2002). 학습권에 교육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최문민, 2003)과 학습권을 교육받을 권리로 부르는 입장(권영성, 2001)에서는 학습권 혹은 교육받을 권리란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자유권적 성격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구분해서 모든 포함관계로 모든 학습권에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속성이 담겨 있다.

### 3. 학습권에 대한 판례

학습권에 대한 대부분의 판례는 학교 제도 안에서 학령기 아동이 교육받는 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었다. 판례들은 학습권이라는 명칭을 전면 에 내놓지는 않았지만 수학권(修學權)이나 교육받을 권리 등으로 표현하고 각각의 성격에 대해 규정 하였다. 예를 들어, 수학권은 헌법재판소가 국정교과서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손희권, 2004)인데,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권리로 보았다. 교육받을 권리로 명시한 판례들도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 보았다. 또한 판례 중에는 학습권을 교수자가 가르치는 권리인 교육권과 대립하여 누구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과 학습권에 속하는 주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지를 판단하는 것도 있었다. 학습권을 “수학권”이라고 명명한 판례(1999. 3. 25. 결정, 97헌마130)는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심판을 신청한 사건이다.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를 “수학권”이라고 명명하며 “이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학습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에 교육조건의 개선과 교육기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 것이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축이었는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지는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여기서 학습권은 학부모의 권리(교육참여권)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권을 교육받을 권리로 본 판례는 2004년 사법대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에 대한 판결이 있다(2004. 3. 25. 결정, 2001헌마882). 헌법재판소는 사법대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들었다. “교과목 간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복수·부전공이 행해질 경우에는 교사의 전문성이 그만큼 저하될 수도 있는데, 이는 국민의 학습권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판례에서는 학습권을 교사에 의해 교육을 받을 권리로 이해하고 있고, 국가의 방해보부터 자유로운 자유권적 성격을 지니며 학습자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학습권을 교육받을 권리로 본 대부분의 판례는 학습권의 사회권적 성격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고 하였다(2000. 4. 27. 결정,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국민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의무가 학습권을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수자의 교육권이 대립하는 문제를 다루는 판례들은 학습권이 교육권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992. 11. 12. 결정, 89헌마88; 2007. 9. 20. 결정, 2005다25298). 1992년 사건에서는 학습권을 수학권이라 표현하였는데,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교육권인 수업의 자유는 모두 보호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헌법 제34조) 필수적인 조건이고 대전제이며, 국민의 수학권이 교육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실현될 때 비로소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992. 11. 12. 결정, 89헌마88). 2007년 사건에서도 교육권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

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이 오히려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2007. 9. 20. 결정, 2005다25298). 학습자의 학습권은 교사의 교육권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학습권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 학습권이 학부모에게도 있느냐에 대한 판결도 있다. 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이 특정인을 총장으로 임명하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가 학생을 대신하여 임명 행위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학부모에게 “대학교로부터 그 학생으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권이 있다는 주장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4. 12. 22. 결정, 94다14803 판결). 이는 학습권과 관련된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이 학교급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던 판례<sup>4)</sup>에서 볼 수 있듯이 학부모 교육참여권은 초·중·고에서는 인정되나, 대학생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은 제한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학습권이 학교 이사회의 권한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3년에도 학습권이 학교 이사회와 연관된 판례가 있었다. 대학교 세무학과에 재학 중이고 조세정책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담당교수를 행정학을 전공한 자를 임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원고인 학생들의 주장과 같이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993. 7. 27. 결정, 93누8139). 학교 이사회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학습권이 확보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권은 이사회와 같은 기관의 대표나 기관장 등에게 부여된 권한과도 엮여 보장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학습권은 판례에서 다양한 용어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학습권은 학습자 개인의 권리이지만 다양한 주체들과 엮여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습권은 학습자를 둘러싼 교수자, 학부모, 기관장 등이 가진 권리나 권한과 서로 연관되며 이러한 다양한 주체의 권리와 권한의 여부, 범위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 Ⅲ. 수용자 학습권에 관한 판례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 학습권과 관련된 판례를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정보에서 수집하였다. 판례는 ‘수용자 교정’, ‘수용자 교화’, ‘수용자 교육’, ‘수용자 학습’, ‘수용자 신문’, ‘수용자 도서’, ‘수형자 교육’, ‘수형자 책’, ‘교도소 교육’, ‘교도소 집필’, ‘수용자 문예작품’, ‘교도소 신문’ 등을 키워드로 수집하였다. 수집 결과, 수용자 학습권의 넓은 범위에 포함되는 판례는 총 51건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건, 신문이나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사건, 쓰는 것에 대한 사건, TV 시청, 선거권, 서신검열, 청구결과에 대한 알권리 등과 관련된 판례였다. 수집된 판례 가운데

데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서신검열은 쓸 수 있는 권리와 관련이 되는 사건이지만 소송 쟁점이나 판결의 내용은 쓸 수 있는 권리와는 무관한 발송불허나 지연에 대해 다뤘기 때문에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청원서 집필에 관한 판례들이 있었는데, 이 중 청원권 자체에 관해 다른 판례는 제외하였고 청원권과 관련되더라도 집필을 학습으로 보고 교정교회와의 관계를 다룬 판례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각하된 사건은 판단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1건의 판례 중 분석대상이 되는 판례들은 교육받을 권리, 읽을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되어 있었다.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판례는 총 10건이었다. 10건의 판례는 교육받을 권리 1건, 읽을 수 있는 권리 6건, 쓸 수 있는 권리 4건을 다루고 있었는데, 한 판례(2016. 4. 28. 결정, 2012헌마549)는 읽을 수 있는 권리와 쓸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다루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판례는 1998년 선고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판례는 2018년 사건이다. 1990년대 후반에는 판례가 2건으로 적을뿐더러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위법, 인용, 위헌 판단이 나오면서 관련 법 등이 개정되어 학습권이 점차 확대될 수 있었다. 2018년에는 교육받을 권리와 읽을 권리 모두 위헌, 위법 판단이 내려져 관련 법과 규범 등이 변화할 수 있었다. 수용자 학습권 판례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수용자 학습권 판례

구분	연도	사건 내용	판결	판단 내용
교육받을 권리(1건)	2018(2018. 5. 9. 결정, 2017구합22055)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교육·작업이 강제로 금지되었고 이것이 처우등급 점수에 반영되어 등급을 낮게 받음	위법	교육은 부당하게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분류처우 업무지침' 변경: 교육이나 작업을 받지 못한 경우 수행생활 태도 점수만으로 처우등급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1998(1998. 10. 29. 결정, 98헌마4)	「인권하루소식」과 한겨레 및 문화일보 구독 신청하였으나 불허되고 수시로 특정 기사를 삭제된 상태로 제공 받음	기각	구금시설의 상황상 최소한의 제한은 불가피함
읽을 수 있는 권리(6건)	2007(2007. 12. 21. 결정, 2007구합35326)	법률신문 구독이 거부됨	위법	수용자에게 신문의 종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임
	2013(2013. 7. 25. 결정, 2012헌바63)	미결수이자 마약류 사범인 청구인에게 도서반입이 거부됨	기각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 도서제한은 필요한 조치임
	2014(2014. 9. 4. 결정, 2013구합3406)	마약류 사범으로 미결수용된 청구인의 신문 구독이 거부됨	위법	신문의 종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함
	2016(2016. 4. 28. 결정, 2012헌마549)	미결수용자에게 금지기간 중 신문 및 자비구매도서 열람을 제한하는 형집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가 아님
	2018(2018. 5. 18. 판결, 2018누2293)	'누드스토리' 잡지교부 거부됨	위법	잡지의 내용과 종류를 제한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
쓸 수 있는 권리(4건)	2005(2005. 2. 24. 결정, 2003헌마289)	집필이 불허되었고, 금지처분을 받으면서 집필을 다시 하고자 했으나 불허됨	위헌	금지처분을 받은 자의 집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법함. 시행령 개정: “소장은 교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제한을 완화함
	2012(2012누1082)	자신이 쓴 문예작품인 '어느 사형수의 독백'을 출판하고 싶어 출판사에 발송을 의뢰했으나 불허됨	기각	청구인의 집필문은 실제 일어난 두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공익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발송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2014(2014. 8. 28. 결정, 2012헌마623)	금지처분 기간 동안 집필이 모두 금지됨	기각	2005년 사건으로 집필 제한의 정도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제재임
	2016(2016. 4. 28. 결정, 2012헌마549)	미결수용자에게 금지기간 중 집필을 제한하는 형집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가 아님

# 교정 NEWS

교정 1월호

## 법무부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긴급 현장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월 2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현황과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 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확진자의 타 기관 분산 수용,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확인을 마친 후 추미애 장관은 다수의 확진자 발생으로 비상근무를 실시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2월 20일 이윤구 법무부 차관 서울동부구치소 긴급 현장 점검 실시

## 교정본부 2020 연말 연탄 나눔

교정본부는 연말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랑의 연탄'을 후원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 교정본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연탄 4,500장(상당 금액)을 '밥상공동체-연탄은행'에 기부했다. 과천시 소재의 꿀벌마을에서 교정본부장 등 27명이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봉사 활동은 생략했다.



## 변경 접견제도 실시

지난 1월 1일부터 '접견 예약 필수', '수용자의 접견민원인 지정',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접견제도가 실시됐다. 앞으로 민원인의 접견 대기 시간 단축 및 접견 시간 연장,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모든 접견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또한 수용자의 접견민원인 지정을 통해 수용자의 사회 복귀에 필요한 민원인과의 집중 접견이 가능해졌다. 토요일은 '아동접견의 날'로 지정하여 접견민원인의 범위를 미성년 자녀와 주 보호자 1인으로 제한, 학령기 자녀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접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특별 점검



교정본부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속 기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교정본부 및 각 지방교정청 소속 35개 점검반 총 70명이 전국 50개 교정시설(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제주교도소 제외)을 방문해 1일 2회 체온 측정,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비말 차단 시설 설치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 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 시범 실시

교정본부는 지난 11월 9일부터 약 두 달 동안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 '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을 시범 실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 전문 지원 기관인 창업진흥원과의 협업으로



진행된 실전창업교육은 창업캠프, 외부 전문가 멘토링, 창업경진대회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출소 후 사회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창업 모델을 도출하는 사회 적응형 창업교육이다. 이번 시범 실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교육 일정이 지연되고 일부는 비대면으로 실시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 의지와 열띤 참여로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최우수 아이템 : 공공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최적화된 매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 앱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노응비**  
**서울청 소속 교정기관장 화상회의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12월 21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소속 교정기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청 소속 교정기관장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구치소 / 교도 김상혁**  
**방호원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서울구치소는 12월 21일 공무직 방호원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신용해 소장은 임용된 직원에게 축하 인사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시기에 본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 실시**  
 안양교도소는 12월 9일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는 조리원 1명 모집에 4명, 환경미화원 1명 모집에 6명이 지원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따로 응시자 대기실을 마련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면접 시험을 진행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홍진석**  
**음주 운전 근절 표어 공모전 실시**  
 수원구치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다잡고자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 운전 근절 표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표어는 배너로 제작해 복도, 직원 식당 등 청사 곳곳에 게시돼 소속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최재화**  
**식품위생서기보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12월 7일 신규 식품위생서기보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박호서 소장은 신규 직원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원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도주 사고 대비 합동훈련 실시**  
 인천구치소는 12월 4일 인천지방검찰청 구치감에서 인천지방검찰청과 협조해 출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도주 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조치 등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교정협의회 및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마스크 기증**  
 서울남부구치소는 12월 9일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와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현대일 신부로부터 사랑의 마스크 2만 장과 4,200장을 각각 기증받았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기증받은 마스크 전량을 수용자에게 지급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철저히 기할 예정이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교정위원 가래떡·백설기·컵라면 기증**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17일과 18일 교정위원 기독교 분과위원회와 천주교 분과위원회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가래떡 1,800개와 백설기·컵라면 2,150개를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실시됐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최재성**  
**대체복무요원 전입**  
 의정부교도소는 12월 14일 대체복무요원 42명을 대전교도소 대체복무 교육센터로부터 인솔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식 등 행사는 생략하였지만, 하영훈 소장은 "직원과 대체복무요원 간에 신뢰 관계를 형성하길 바란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여주교도소는 12월 9일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기존에는 연 1회 실시한 행사이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과 사회봉사 동참의 의미를 담아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다. 경기혈액원은 "공공 기관에서 헌혈에 참여해 주신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교정위원 마스크 기증**  
 서울남부교도소는 12월 4일 이춘화 교정위원으로부터 수용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마스크 3,000장을 기증받았다. 김도형 소장은 "교정 행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증해 주신 마스크를 활용해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 실시**  
 춘천교도소는 11월 26일 청사 교육실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정부 정책 소통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다양한 사례와 게임을 통해 정부 혁신, 적극 행정, 갑질 예방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직원 소리함 설치 및 소통의 날 지정**  
 원주교도소는 12월 14일 '직원 소리함'을 설치하고 매주 수요일을 '직원 소통의 날'로 지정했다. 이는 직원들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렴된 의견은 교정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원**  
**스테이 스트롱 공익 캠페인 참여**  
 강릉교도소는 12월 15일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기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고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일환 소장은 "강릉교도소는 철저한 방역 수칙과 개인위생 관리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월교도소 / 교도 정옥수**  
**코로나19 대응 직원 격려 식사 제공**  
 영월교도소는 12월 21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용 관리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국내산 수육과 과일을 지급했다. 한 직원은 "심리적으로 큰 위로가 됐다. 앞으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위 양인호**  
**스테이 스트롱 공익 캠페인 참여**  
 강원북부교도소는 12월 11일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 기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직원은 "코로나19 위기는 모두가 힘을 합칠 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윤우리**  
**직원 건강검진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2월 4일 별관 2층에서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검진을 받은 한 직원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코로나19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소망교도소 / 7직급 양재영**  
**8직급 승진 임용식 개최**  
 소망교도소는 12월 3일 8직급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장실에서 간소하게 진행된 이번 승진 임용식 대상자는 총 3명으로, 모두 2015년 입사한 직원들이다. 권기훈 소장은 승진한 직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며 앞으로 맡은 업무에 더욱 솔선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정청열**  
**대구청 소속 교정기관장 화상회의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12월 22일 코로나19 방역 대책 및 방역 수칙 준수 상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구지방교정청 소속 교정기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교정기관장들은 교정시설의 선제적 방역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기관별 자체 코로나19 점검반 운영, 직원 및 수용자 마스크 지급 등을 약속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대구교도소 신축 시설 인수**  
 대구교도소는 12월 3일 대구 달성군 하빈면 소재 대구교도소 신축 시설을 시공사(금호산업 등 4개

업체)로부터 인수받았다. 대구교도소 신축 시설은 기존 노후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수용 환경 개선, 인권 향상,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맞춤형 교정 행정 구현을 목표로 완공됐다.

**부산구치소 / 교사 최병철**  
**직원 자녀 돕기 성금 전달식 개최**  
 부산구치소는 12월 23일 직원 자녀 돕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동료들의 정성을 모아 성금을 전달함으로써 직원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진용혁**  
**진보초등학교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2월 17일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청송군 진보면 소재 진보초등학교 재학생 20명에게 각각 2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2008년 교정장학회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고 있다.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민원시설 환경 개선 운동 실시**  
 창원교도소는 12월 4일 민원시설 환경 개선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운동은 민원과를 주축으로 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행됐으며, 민원인이 방문하는 길목과 민원인 주차장 등을 청소해 교정 시설의 밝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고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의무관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부산교도소는 12월 14일 소장실에서 손은익 신규의

무관(기술서기관)의 간이 임용식을 개최했다. 손은익 신규 의무관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약 30년간 활동하고, 퇴임 후 의료 사각지대에 가려진 환자들을 돕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교도소 / 교도 김병수

학천초등학교 장학금 전달

포항교도소는 12월 16일 학천초등학교 재학생 10명에게 각각 3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은 포항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 꿈나무들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교정협의회 마스크 기증

진주교도소는 12월 8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KF94 마스크 1만 장을 기증받았다. 진주교도소장은 "힘든 시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신 교정협의회 회장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기증해 주신 마스크는 전체 수용자에게 지급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대구구치소는 성탄절을 맞이해 12월 7일 청사 입

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으로 지친 직원들을 위로하는 한편, 성탄절을 앞두고 사랑과 나눔의 분위기를 조성해 침체된 직장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설치되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이정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직원 자녀 격려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2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직원 자녀에게 합격을 기원하는 롤케이크를 전달했다. 류동수 소장은 "미래를 위해 인고의 시간을 지내 온 직원 자녀 여러분이 좋은 결과로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안동 풍산교회 떡, 과자 기증

안동교도소는 12월 24일 성탄절을 맞이해 안동 풍산교회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떡, 과자 등을 기증받았다. 금용명 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선진 교정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말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헌

크리스마스 야근부 특식 제공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크리스마스 야근을 앞둔 12월 24일 야근부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은 샌드위치 특식을 전달했다. 최진규 소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임에도 다른 동료 직원들이 편안하게 쉬 수 있도록 고생하는 야근부 직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문성중학교 장학금 전달

김천소년교도소는 12월 9일 문성중학교 3학년생 4명에게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차재성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성적 우수 저소득층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격려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서성훈

천안 온누리교회 사과, 떡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성탄절을 맞이해 12월 22일 천안 온누리교회로부터 사과와 떡 600인분을 기증받았다. 김성호 소장은 "마음을 모아 지원해 주신 천안 온누리교회 일동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황정목

수돗물 절약 제도 운영

울산구치소는 지난 8월부터 물 절약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수용자 수돗물 절수 방안 세부 시행 계획'을 실시해 전년 대비 약 40%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앞으로도 울산구치소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공공요금 절약을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직원 자녀 격려

경주교도소는 12월 1일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직원 자녀에게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로 참쌀떡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낸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도 덧붙였다.

통영구치소 / 교위 박원주

배수로 확장 공사 완공

통영구치소는 12월 15일 통영시에서 지원하는 '통영구치소 인근 태풍 피해 복구공사'의 주 공사인 배수로 확장 공사를 완료했다. 배수로가 확장되면서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침수 시의 단수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하게 됐다.

밀양구치소 / 교사 최상훈

부북초등학교 장학금 전달

밀양구치소는 12월 18일 관내 자매결연 학교인 부북초등학교의 학생 5명에게 각 4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은 매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기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적 우수 학생에게 전달됐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방호원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상주교도소는 12월 7일 소장실에서 신규 방호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일부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의호 소장은 신규 방호원 직원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최재혁

제29대 김천수 대전지방교정청장 퇴임식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12월 28일 김천수 대전지방교정청장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천수 청장은 퇴임사에서 "34년간 몸담은 교정 현장을 떠나지만, 교정의 무궁한 발전이 이루어지길 늘 바랄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환경 개선 실시

대전교도소는 12월 11일 보안과 주 복도에 이미지월 액자를 설치하고 외부정문 노후 현판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교체된 현판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대전교도소입니다'라는 문구를 새겨 민원인들에게 새로운 교정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박현우 의료과장, 2020년 법무부 우수 인권 공무원 표창 수상

청주교도소 박현우 의료과장은 12월 9일 '2020년 법무부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현우 의료과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수용자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 수용자 건강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하반기 퇴임식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12월 11일 2020년 하반기 퇴임식을 개최했다. 소장과 직원들은 교정 현장에서 헌신하며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힘쓴 직원의 영예로운 퇴임 및 새롭게 시작될 인생 2막을 함께 축하해 주었다. 퇴임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희명

교정행정협의회 개최

공주교도소는 12월 18일 교정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직원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교정행정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교도소 / 교도 전인호

전화 민원 응대 친절도 교육 실시

천안교도소는 12월 8일 민원실 직원 및 각 부서별

전화 응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 민원 응대 친절도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단계별 전화 응대 표현 방법과 사례 등이었다. 천안교도소는 이와 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화 민원 응대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정민호

가정의 날 행사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12월 16일 '가정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가정의 날' 행사는 연말을 맞이해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들에게 문화상품권 및 간식을 지급했다. 천안개방교도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직장 만들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홍성교도소 / 교도 조경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직원 자녀 격려

홍성교도소는 12월 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격려품을 전달했다. 박용우 소장은 직원들에게 "시험을 준비해 온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 노력의 결실을 맺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충주교도소 / 교위 류종근**  
**부패 방지를 위한 실무자 회의 진행**  
 충주교도소는 12월 17일 청렴 요구 분야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및 부패 방지 예방 등 청렴한 공직사회 확산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진행했다. 실무자 회의는 청렴 요구 업무 수행 시 직원들의 애로 사항과 갑질 근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손준성**  
**직원 격려 행사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12월 11일 연말을 맞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해 간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간식 행사는 연말 지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직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김승인**  
**교정협의회 마스크 기증**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2월 16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마스크 2000장을 기증받았다. 유철흠 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매년 많은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방역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코로나19 관련 소속 기관 격려품 지급**  
 광주지방교정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밤낮으로 수용 관리에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사기를 진작하고자 격려품을 지급했다. 유승만 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직원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교도소 / 교도 심우민**  
**염주동 성당 마스크 기증**  
 광주교도소는 12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 염주동 성당으로부터 코로나19 극복의 염원을 담은 마스크 6만 장을 기증받았다. 이 외에도 지난 11월 24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8만 6,000여 장에 달하는 마

스크와 구호 물품을 기증받은 광주교도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사랑앓 연탄 나눔' 실시**  
 전주교도소는 12월 7일 직원들이 기부한 성금으로 연탄 2,000장을 마련해 인근 마을의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기부했다. 또한 전주연탄은행에 기부금을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탤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관내 학교 장학금 전달**  
 순천교도소는 12월 10일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관내 학생들에게 '디딤돌 교정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2013년 조성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디딤돌 교정 장학금'은 현재까지 70명의 학생들에게 2,400여만 원이 지급됐다.

**목포교도소 / 교사 광현국**  
**교정협의회 마스크 기증**  
 목포교도소는 12월 28일 목포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에게 지급할 KF94 마스크 9,600장을 기증받았다. 정봉수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를 위해 마스크를 후원해 주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재민**  
**전 직원 마스크 지급**  
 군산교도소는 12월 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 관리에 힘쓰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1인당 KF94 마스크 25장씩을 지급했다. 이번 마스크 지급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친 직원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시행됐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광주교도소 직원 격려 감귤 전달**  
 제주교도소는 12월 10일 직원 및 수용자의 코로나 19 확진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광주교도소 직원들을 응원하고자 감귤 50박스를 전달했다. 김춘오 소장은 감귤을 전달하면서 "나눔을 통해 상생하는 교정 가족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크리스마스 맞이 희망 트리 설치**  
 장흥교도소는 12월 1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무청사 출입구에 희망 트리를 설치했다. 이번 크리스마스 희망 트리는 지친 직원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활력을 끌어올려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해남교도소 / 교도 박인휘**  
**수용자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해남교도소는 12월 24일 수용자 독후감 공모전에 참여한 작품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독후감 공모전은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부상을 지급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교정협의회 마스크 기증**  
 정읍교도소는 12월 16일 교정협의회로부터 KF94 마스크 3,000장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도소 내 완벽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기증받은 마스크는 모든 수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소식이 오다  
 ● 2020년도 최우수 공무원

## 무적 수용자의 호적 등록을 통해 교정서비스 발전에 기여



부산구치소 교위 김성민

김성민 교위는 보안과 고충처리팀 송무 담당으로, 2020년 2월부터 무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안건을 실무자 사전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적 수용자의 호적 등록에 매진해 왔다. 고아로 태어난 수용자가 64년 동안 무적자로 지내면서 생계형 범죄로 인해 수차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것을 확인한 이후부터다. 김성민 교위는 무적 수용자의 호적 등록을 위해 6개월 동안 부산 사상경찰서, 사상구청, 부산가정법원 등 여러 기관에 협조를 구해 성분 창설 허가와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았다. 그 결과 해당 수용자는 2020년 10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됐다. 또한 급성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치료 중인 한 수용자의 경우에는 그가 출소 후에도 의료보험 혜택, 의료비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김성민 교위의 교정행정 미담 사례는 <부산일보>에 보도돼 부산구치소는 물론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어느 수용자가 <부산일보>에 "출소하더라도 병원비가 막막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소외받고 보잘 것 없는 제게 관심을 가져 준 김성민 교위 덕에 새사람으로 성실히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며 감사의 사연을 제보한 것이다. 언론 보도를 계기로 수용자를 향한 김성민 교위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은 전국 교정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됐다. 이처럼 교정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성민 교위는 2020년도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 다른 그림 찾기

월간 <교정>은 교정공무원을 비롯한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더욱 발전합니다. 아래 사진에는 이번 호 월간 <교정>에 참여해 주신 교정공무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2장을 비교해 보면서 총 5개의 다른 부분을 찾아 주세요.



### 나만의 교정 멋글씨 쓰기

전국의 교정공무원 여러분은 교정행정의 가치와 비전을 만들어 가는 주인공입니다. 2021년 교정행정의 비전인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으로 나만의 캘리그래피를 완성해 보내 주세요.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다른 그림 찾기 정답 및 멋글씨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 참여방법 다른 그림 찾기 및 멋글씨 사진을 촬영 후 이메일에 첨부  
※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QR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5% 할인 구매!



#### P 세금포인트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의 세금 납부액(소득세·법인세)에 따라 부여

#### P 세금포인트 조회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조회」

#### TAX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여러분의 세금포인트 사용이 중소기업과 대한민국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18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날은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전

